

신흥무관학교 104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 2015년 6월 10일(수) 오후 3시~6시 ▪ 다래헌
- 주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 후원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신흥무관학교와 군정부·서로군정서

서 중 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1. 군정부와 이상룡

1919년 3·1독립시위운동은 바로 만주지역으로 퍼졌다. 3월 8일 북간도 용정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2일에는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서 약 2백명이 모여 독립축하집회를 열고 만세시위행진에 들어갔다. 3월 13일 용정에서 규모가 큰 시위가 전개되었고, 17일에는 유하현 대사탄에서 19, 20일에는 삼원포에서 2백~7백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독립운동 열기가 고조되어 그뒤에도 대사탄에서 3월 22일에 시위가 다시 일어났고, 삼원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6일 무기 구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간도의 집안현 통화현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

서간도에서는 1918년 가을에 부민단과 자신계, 교육회의 대동단결 문제가 논의되다가 3·1시위운동으로 독립 열기가 고조되자 3월 13일 또는 4월에 군정부와 한족회를 조직했다.¹ 이상룡 행장에 따르면 한인들이 유하현 고산자에 모여서 혈전 준비를 의논하고 남정섭 송정섭을 보내 이상룡을 모셔와 군정부를 설립하고 이상룡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여준이 부총재였고, 이택이 참모장관이었다. 한족회는 주민 자치기구로, 서간

1 출처가 필자의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역사비평사, 2001)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히지 않았다.

도 일대를 아우르는 한교공회(韓僑公會)였다. 한족회의 정무총장 또는 중앙총장은 이탁이었다.

군정부는 러시아령에 세워진 국민의회나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비슷하게 임시로 세워진 군사정부였다. 군정부가 일종의 정부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단합을 요청했을 때 이상룡이 “내 생각으로는 정부를 세운 것이 너무 빠르지만, 이미 세웠으니 한 민족에게 어찌 두 정부가 있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한 것에서도² 알 수 있지만, 조직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나중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군정부는 서로군정서로 바뀌는데, 그 조직을 보면 최고지휘소로 독판부가 있었고, 그 아래에 정무청이 있었다. 정무청에는 정무총장(이탁) 아래에 내무사장 법무사장 학무사장 등이 있었다. 그와 함께 서(署)의회가 있었고, 독판 등이 참의원을 특선할 수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과 흡사한 의회가 있었고, 군 지휘와 관련해 참모부장 사령관 등이 있었다. 이처럼 서로군정서가 정부 조직과 비슷한 것은 명칭이 일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군정부의 조직체계를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해에서 발행한 1919년 10월 4일자 『독립』에는 한족회에서 매호당 의무금을 걷고 학교를 경영하고 민형사 소송을 처리하여 완전히 하나의 독립국가 모습을 보여준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군정부 총재 또는 서로군정서 독판 이상룡은 군정부나 서로군정서의 최고 지도자일뿐만 아니라, 고산자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 본교, 합니하와 쾌대무자 등의 신흥무관학교, 그밖의 여러 신흥학교와 한족회의 최고지도자였다.

군정부를 조직할 때 이상룡을 최고지도자로 모신 것은 당시 신흥무관학교와 이주민 단체의 최고 원로였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상룡은 군정부 최고지도자로서 손색없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기본 요인이었다.

이상룡은 유림의 방언권이 강한 안동의 당대 명유 서산 김홍락의 제자로서 유학자로서도 성망이 높았고, 조동걸교수가 제시한 혁신유림으로서도 뛰어난 분이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군사 부문에도 관심이 많았고, 조예가 깊었다.

2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국역 석주유고』 하, 2008, 행장 158쪽

이상룡이 천문지리 기형(璣衡) 역기(曆紀) 율려(律呂) 산수 등을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것을 보면 성리학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가 안동을 떠나 만주로 가던 1911년 음력 1월 14일 『陽明實記』를 보면서, 중국의 여러 난을 평정하는 등 장군으로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양명의 독립모험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 또한 그의 남다른 기상을 엿보게 한다. 청일전쟁이 일어날 무렵 그는 변진영이 창안한 연노(連弩) 등의 사용법을 공인 등을 초치하여 연구해 발사했다. 또 병법서로 무감(武鑑)을 저술했다.

이상룡은 의병 활동에도 깊이 관여했다. 1895년 을미의병 거사시 안동에서 의병대장으로 추대된 권세연은 그의 외숙이었다. 이때 이상룡은 비밀히 의병투쟁을 도왔다. 이상룡은 을사조약이 강제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1905년 말 1906년 원단에 의병장 차성충이 있는 거창에 있었고, 1908년 초에는 차성충에게 일만 민이라는 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상룡의 가야산 거병은 차성충이 무기를 빼앗기고 모병한 군인이 해산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신돌석 등과 상응하여 싸우려던 계획도 뜻대로 되지 못했다.

번뇌에 찬 이상룡은 암혈(巖穴)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자신이 기도한 바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시국에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동서열강의 서적을 구하여 읽고 단체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는 근본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장이 된 이상룡은 근대적 법률관 민권의식을 심어주는 데 힘을 쏟으며, 지회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근대식 체조를 실시했고, 향리에서 단련제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서간도에서 이상룡은 3·1운동 일어나기 얼마 전에 길남사를 설립해 연무장으로 삼았다.

이상룡은 옹호한 기상이 꿈틀거리는 장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만주가 조선의 뿌리가 되는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민족의 정통으로 삼았다. 그는 안동에서 만주로 떠날 때 “오직 고구려의 왕통은 마땅히 발해가 이어받은 것으로 해야 하며, 신라·백제·가락은 삼한의 대 뒤를 이은 하나의 계파라고 한 후에야 우리나라 역사가 마침내 바른 데로 귀착하리라 본다”고 설파했다.³

3 위의 책, 36-37, 156쪽

1911년 2월 초순 만주로 가면서 그는 토마스 홉스, 스피노자 등의 저서를 읽으면서 홉스가 군주전제주의를 주장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자유와 민주정치에 적극 공명했다.⁴ 이 시기에 신민회 회원 일부에서 공화제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상룡처럼 민주정치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 군정부에서 서로군정서로

노령, 상해, 한성과 서간도 등지에서 조직된 ‘정부’는 통합을 추진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안창호는 한성정부를 중시하면서 노령 국민의회와 상해 임정의 통합을 추진했다. 상해 임정에서는 서간도 군정부에 대해서 단독행동을 하지 말고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좋으니 임시의정원에 대표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룡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 의견으로는 정부를 세우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미 정부를 세웠으면 동일한 민족인데 어찌 두 정부가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바야흐로 준비하는 시대에 있으니 마땅히 단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지 권위(權位)를 마음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역설하였다.

1919년 9월 초순 상해에 완벽하지는 못했으나 통합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정부에서는 윤기섭을 상해에 파견했다. 양측은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1. 국내의 모든 독립운동을 통제, 지도할 임시정부의 위치는 국제외교상 상해가 적합하므로 그곳에 임시정부를 두도록 하되,

2. 무장 독립군의 국내 진입 활동은 만주가 적합하므로 독립군을 지휘할 군정부는 만주에 건립하는 것을 허할 것”

1919년 11월 17일 서간도 군사기관인 군정부 및 자치기관인 한족회는 임시정부 통치하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임시의정원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정부는 폐지

4 위의 책, 40-41쪽

되고 군정서를 설치하되, 군정부의 정무는 기왕의 제도로 운용케 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⁵ 그리하여 군정부가 군정서가 되었는데,⁶ 북간도의 대한군정서가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군정서가 명칭을 서로군정서로 바뀌게 되었을 것이다.(같은 시기에 대한군정서는 북로군정서로 바뀌었을 것임) 이 서로군정서가 가장 오랫동안 존속하였기 때문에 군정부 군정서 서로군정서중 서로군정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관련자들은 군정부나 군정서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

서로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 등 학교가 있고, 주민자치기구로 한족회가 있기 때문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를 방불케 했다. 최고지휘소인 독판부에는 독판 이상룡, 부독판 여준, 부관 이장녕이 있었다. 정무청에는 정무총장을 책임자로 하여 내무 법무 재무 법무 학무 등의 부서를 두었고, 정무총장 이탁 아래에는 검사와 통계과 교섭과와 비서가 있었다. 내무사장 곽문 아래에는 검무국장 최명수가 있었고, 서무과 교통과 실업과 노동과를 두었다. 법무사장 김응섭은 상법과(常法課) 군법과를 통할했고, 재무사장 남정섭은 이재과 회계과를, 학무사장 김형식은 교육과 편집과를 통할했다.

군무사와 참모부, 사령부도 별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었다. 군무사장 양규열 밑에는 군사과 교육과 헌병과 경리과 전상과(典賞課)가, 참모부장 김동삼 밑에는 참모부원들이, 사령관 이청천 밑에는 부관, 과원, 참모와 의무과 경리과를 두었다. 또 독판 또는 정무총장 군무사장 참모부장 사령관 등이 참의원을 특선하여 참모처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서로군정서에는 의회(서의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대의제가 있었다. 서로군정서가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서로군정서측에서는 임시정부를 그다지 중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상룡은 1921년 박용만에 보내는 글에서 “원래 상해의 기관 건설이 너무 일렀으니, 비록 ‘개량을

5 김정미,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경북대 사학과 2002년 박사학위 논문, 144쪽 참조

6 그러나 서간도에서 군정부를 군정서로 부른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상룡이 1920년에 안창호에게 쓴 서신에서 자신을 군정부 총재로 말하고 있을 뿐 독판이라는 직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앞의 책 상, 418-420쪽) 1920년 이후 언제부터가 군정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 유지 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지라”라고 피력했다.⁷

독판 이상룡 등 서로군정서 관련자들은 특히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이상룡은 이승만을 옹호하는 단체인 통일회측 사람들을 젊은 무뢰배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 “백일하에 공론을 등지고 사사로운 일을 자행하여 국적(國賊)의 오른팔이 되고도 편안히 부끄러운 줄 모른다. 도무지 양심이 없는 무리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라고 지탄했다.⁸ 이승만을 국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주목된다.⁹

상해 임시정부와 서로군정서와의 갈등은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정부로 출범하기 전에 이상룡에게 보낸 서신에서 안창호는 정무의 중점을 외교 내정 재무 군사 순으로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이상룡은 1920년안창호에게 보낸 서신에서 제4항인 군사를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재무를 제2항으로 삼아서 일에 전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는 답신을 보냈다.¹⁰ 외교 중심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답신을 늦게 보낸 것도 유의된다. 1920년 2월에 열린 재만임시국민대회에서는 국내에 들어가 혈전을 벌일 것을{朝鮮 內地 侵襲血戰} 결의했다. 결의안 실행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로 파견할 대표자로 신흥무관학교 교두(敎頭-윤기섭은 교감이었다) 윤기섭과 한족회 사판정(査判正) 이진산을 선출했다. 이들은 동시에 상해 임시의정원의원이 되었다.¹¹

윤기섭은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군사정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3월 16일 회의에서 이진산 이유필 등과 함께 ‘개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질의했다. 윤기섭 이진산 왕삼덕 이유필 김홍서 등은 3월 30일 금년 5월 상순 안으로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 육군·군사·군수·군법의 4국 등 모든 군사기관을 만주로 옮기고 1920년 안에

7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앞의 책 상, 414쪽

8 위의 책 하, 92쪽

9 이상룡의 이승만 비난 詩는 위의 책 상, 206쪽 참조

10 위의 책 상, 418-422쪽

11 김정미, 앞의 논문, 148-151쪽

만주에서 보병 10개 내지 20개 연대를 편성 훈련할 것 등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고, 의정원은 정부에 이 건의안 채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다.¹² 그러나 임시정부는 군사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¹³

「연계여유일기」 첫머리에 나오는 대로, 이상룡은 1920년 설달보름에 북경(연경)에서의 군사통일촉성회의 취지를 전달받았고, 이회영과 박용만의 초청을 받았다. 각 단체의 통합은 이상룡이 일찍이 힘을 기울이던 일이어서 북경으로 떠났다.¹⁴ 2월 18일 이상룡 일행이 북경에 도착했고, 다음날 박용만 신숙 백순 이상룡 이회영이 각기 연설을 했다. 북경군사통일회의는 1921년 4월 17일 열렸다.

북경군사통일회의 주류는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것에 대해 이상룡은 상해기관(상해임시정부를 가리킴. 이상룡은 그의 글 여러 곳에서 상해임시정부를 지칭할 때 정부라는 말 대신 기관으로 표현하였다.)과 상해기관 여러 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누차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¹⁵ 군사통일회의에서는 5월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뜻을 밝히고 국민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로군정서 간부들은 1921년 5월 26일 액목현에서 회의를 열고, 임시정부 개조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위임통치 청원을 한 자들은 (임시정부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이 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시정부로부터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서로군정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시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6월 초 순 북경에서 서간도로 돌아온 이상룡은 여준 이택 김동삼 광문 등과 토의를 하여 임시정부로부터 탈리(脫離)를 결정했다. 이 시기 이상룡은 실력의 저축에 주의해서 스스로 시기를 만들 것을 역설했다.¹⁶

12 이재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과 윤기섭」,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선생 학술회의』 2011. 4. 5. 60-62쪽

13 김정미, 앞의 논문, 152-153쪽 참조

14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앞의 책 하, 55쪽

15 위의 책, 86쪽

16 김정미, 앞의 논문, 163-164쪽 참조

3. 군정부 · 서로군정서의 재정적 기반

앞에서 언급한 안창호에게 보낸 답신에서 이상룡은 군무기관 곧 군정부를 조직해 2개의 여(旅) 제도를 편성했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한 사람들도 우등 자격만 가진 사람이 5~6백명이고 새로 모집되어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수이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피력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재정이었다. 예컨대 만주에서 무기를 구입하기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¹⁷ “한탄스러운 것은 재정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외교 등 여러 정책 중에서 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인을 양성하거나 군대를 편성해 대적하는데, 재정은 필수적이었다.

당시 독립군 활동은 만주에서만 가능했는데,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웠던 것은 위의 서신에서 이상룡이 지적한대로 “각자 생활이 곤궁”한 것이 기본 요인이었지만, 일제가 중국 관헌을 앞장세워, 또 독자적으로 출병하여 민족의식이 강한 조선인을 살육하고 집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일삼아 조선이주민 사회가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는 기지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중요 요인이었다.

서간도 이주민 사회는 3·1운동 이전에도 신흥무관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자치기관을 운용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비용을 각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족회는 주민세 비슷하게 매호당 1원 5각씩을 각출했다. 그렇지만 이 돈으로는 비용 감당이 어렵자 지역에 따라서 교육비, 호세, 군자금 등 여러 명의로 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사탄 제1구 관내의 경우 1호당 양금(洋金) 4원2전5리씩 받았다. 그중 2원 50전은 회비로, 1원 50전은 지방비로, 2전 5리는 상조비로 그렇게 받은 것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시기에 따라서 달랐다. 1919년 3,4월 독립운동 정신이 고양되었을 때 비용 모집이 활기를 띠었다. 일제 자료에는 그해 가을 추수철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나온다.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대두자나 고산자는 주민들이 거의 다 한족회에 가입했

17 무기 구입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김경천과 신헌균을 러시아 니콜리스크로 보내 무기를 구입토록 했으나, 연해주 만주의 복잡한 정세로 무기를 구입해 복귀할 수 없었다. (김경천, 『경청야일록』, 79쪽, 장세운, 「일송 김동삼의 신흥무관학교 참여와 통의부 활동」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2014. 6. 10. 13쪽에서 재인용)

고, 촌락에 사는 주민들도 독립사상을 품고 있었다.

군자금을 걷는 것은 한족회 '구장'의 소관이였다. 구장이 집집마다 돈 걷으러 오면 “일본놈 보기 싫어 만주 왔더니, 농사 지어 놓으면 군자금 한다고 다 뺏어간다”고 퍼붓는 아낙도 있었다. 일부 아낙네들이 장에 가서 나락 팔고 해서 돈 좀 쥐면 무슨 단체, 무슨 모임에서 가두모금을 하기 때문에 “고산자 장터가 범 아가리다”라고 말하면서 '세금' 걷는 것에 불평을 하면 남자들이 나라 위해 하는 일인데 다 같이 협조할 줄 모른다고 야단을 치는 풍경도 있었다.

주민들의 독립사상이 강한 지역에서는 친일단체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 집안현 온화보의 경우 주민들이 모두 한족회에 가담해 친일단체 조합의 구장이나 평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 이후 여러 종류의 기부금 징수로 부담이 늘고, 서로군정서 측과 경쟁적이었던 독립단에서 기부금을 걷는 데다가 독립운동의 열기가 약화된 점도 작용해 한족회의 회비 징수에 어려움이 초래되었다.¹⁸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일제의 위협과 만행으로부터 왔다.

신흥무관학교는 3·1운동 이후 국내와 만주 등 해외 각지에서 청년들이 모여들어 고산자와 쾌대무자에 새로 신흥무관학교 본교와 분교를 세우는 등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으나 그러한 활동은 일제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19년 7월 유명한 마적장강호 일당이 신흥무관학교를 습격해 교감 윤기섭 등을 납치한 것은 그 배후에 일제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8월에는 고산자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학교 내에서 밀정혐의로 붙잡아온 윤치국을 구타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얼마 후 학교는 정학명령을 받아 일시 학무를 정지했다.

중국당국은 1920년에 들어와 노골적인 탄압에 나섰다. 1월 14일 삼원포에 본부가 있는 한족회 및 독립단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했고, 이어서 한족신보사 등을 폐쇄했다. 이

18 군자금은 국내에 들어가 모집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정미의 박사학위논문에는 경북 영해 출신의 박대춘이 군정서 지령으로 국내 잡입 활동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음독 자살한 것, 거창의 여러 인사들이 군자금을 거두고 의용병도 모집해 서로군정서로 간 것 등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김정미는 특히 서로군정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의용단을 조직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경북 동부지방과 경남 창녕의 자산가들에게 군자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38명이 체포된 조선독립후원의용단사건에 대해 비중을 두고 서술했다.(155-158쪽)

러한 탄압에 서로군정서·한족회측에서는 국민대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3·1독립시위 1주년 기념식을 ‘애국적 정열로 가득찬’ 가운데 가졌던 3월과 4월에 일본경찰이 중국인 경찰 등을 대동하고 쾌대무자 한족회 사무실 공문서를 탈취하고 그곳과 해룡현에서 관계자를 영사관에 끌고 갔다.

규모가 큰 탄압은 그해 5월부터 있었다. 일본경찰과 중국 순병이 삼원포 일대에서 3백여명을 포박하여 끌고 가 고문했고, 이들중 안동식과 방기전 등은 유하현으로 끌려가 얼마후 살해되었다. 봉천독군의 경찰고문 우에다와 사카모토가 각각 지휘하는 ‘중·일합동수색대’ 두 부대는 5월부터 8월까지 남만주 일대를 뒤지면서 한족회와 독립단 관계자들 수백명을 체포하여 일부를 살해했다. 우에다부대 사카모토부대의 ‘중·일합동수색대’에 이어 장강호가 이끄는 마적과 일본기병 중위로 예편한 나카노가 이끄는 부대도 배일 조선인 마을에 출몰하여 불을 지르고 학살을 자행했다.

최대의 학살은 청산리전쟁 직후인 1920년 10월 하순부터 11월에 걸쳐 복간도 서간도 일대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되었다.(경신대참변) 서간도에는 관동군 19연대와 20연대가 출몰하여 전자는 통화 환인 집안 임강 등지를, 후자는 해룡 유하 삼원포 청원 등지를 유린했다. 독립신문 1920년 12월 18일자에는 유하현 삼원포 피살 43명, 체포 125명, 흥경현 왕청문 피살 305명, 관전현 피살 495명, 철령 및 관전 사이 피살 480명 등으로 보도되었다.

4. 서로군정서와 청산리전쟁

서로군정서는 양면으로 청산리전쟁에 참여했다. 하나는 북로군정서와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면서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이 북로군정서의 요직을 맡아 청산리전쟁에 참여했다. 다른 하나는 흥범도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전쟁에 참여했다.

서로군정서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는 청산리전쟁 이전에 깊은 협력관계에 있었다. 김좌진이 1918년 서울에서 만주로 왔을 때 이상룡을 찾아와 서로 같이 일하기로 했고, 3·1운동 직후 고산자에서 독립운동자들이 혈전을 논의할 때도 김좌진이 참여했다. 1920년 5월 29일 북로군정서 대표 사령관 김좌진과 서로군정서대표 헌병대장 성준용 사이

에, 두 군정서가 동일 취지의 군사기관이므로 업무진행 발전상 협동 일치를 위해, “군사상 모든 중요 안건은 상호 협의하여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 두 기관의 사관연성, 무기구입에서, 혹은 불의의 일에 대하여 상호 부조”할 것 등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했다.

서로군정서는 거의 무기가 없었는데, 북로군정서는 무기를 많이 구입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과 관계자들은 서로군정서에서 훈련과 전략 전술을 체득한 뒤 실제로 독립전쟁에 기여하기 위해 북간도로 갔다. 또 북로군정서는 병서 등 서적이 적었기 때문에 예컨대 이우석은 이장녕 백종렬 강화린 등과 함께 군사학서적 30여권을 북로군정서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북로군정서는 대중교세력을 중심으로 급속히 편성된 부대여서 군인들을 통솔하고 전쟁을 지휘할 간부들이 부족했다. 이상룡이 1920년에 김좌진에게 보낸 답신에는 김좌진이 이상룡에게 이장녕 등을 북로군정서에 보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답신에 이장녕이 일을 맡아 떠나기가 어렵지만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는 둘이면서 하나이므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뜻을 따르겠다고 쓰여 있는데,¹⁹ 신흥무관학교 관계자와 졸업생들은 북로군정서의 요직을 맡았다. 이장녕은 북로군정서 참모장이 되었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법석은 사관연성소 본부 교사와 연성대장을, 졸업생 박영희 김춘식(김훈) 백종렬 강화린 오상세 이운강 등은 각각 사령부 부관 및 연성소 학도단장을, 종군장교와 소대장을, 제2학도대 제3구대장과 종군장교를, 제1학도대 제3구대장과 제1중대장서리를, 제4중대장을, 소대장서리를 맡았다. 이들은 청산리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이상룡은 군정부에 2여(旅)가 있다고 썼는데, 서로군정서 소대장이었던 김학규는 서로군정서는 2개 연대를 두었고, 그 아래에 6개 대대를 두었다고 기술했다. 일제가 중국관헌을 이끌고 습격한 1920년 5월 이전에 서로군정서에는 정규군으로 의용대가 있었고, 약 4백명의 신흥무관학교 생도들로 구성되어 지청천이 이끈 교성대가 있었다.

이상룡은 신흥무관학교가 일제의 주목을 받게되자 1919년 가을 성준용과 사위 강

19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앞의 책 상, 443-444쪽

남호를 안도현에 보내 군영지로 적합한지 알아보게 했다. 안도현은 백두산자락에 이어진 대삼림지대여서 운신하기가 좋았고 봉천성에 속해 있으면서 길림성과 접경지대여서 피신하기가 용이했다. 교성대가 1920년 7월 이전에 안도현으로 이동한 것은 북간도지역의 독립군과 공동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연변지역의 독립군들은 일제의 대규모 군대 투입에 직면해 중국당국이 피신을 권하자 8월 초부터 이동했다. 지청천의 교성대가 만난 것은 봉오동전투에서 승리한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이었다. 교성대는 청퇴 이강훈자서전에 의하면 홍범도부대가 제공한 무기로 무장했다. 그리하여 홍범도부대와 함께 청산리전쟁에 참여했다. 일제의 자료에는 홍범도부대와 공동작전을 벌이던 한족회부대가 청산리전쟁에서 일제쪽 부대였던 아즈마지대의 공격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홍범도부대와 연락이 되어 황구령촌 방향으로 이동해 홍범도부대와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병력은 약 140명이라고 적혀 있다.

청산리전쟁후 홍범도부대 약 6백명은 지청천부대 약 4백명과 통합했다.(총사령 홍범도, 부사령 지청천) 독립군은 러시아령으로 넘어가기 전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는데, 총재 서일, 부총재 홍범도 김좌진 조성환, 총사령 김규식 외에 참모총장 이장녕, 여단장 지청천, 중대장 김창환 김경천 오광선 등은 모두 서로군정서·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이었다. 신흥무관학교와 서로군정서의 비중을 알게 해준다.

5. 의용대의 활동과 서로군정서의 변화

의용대는 이상룡이나 김학규가 쓴 글을 보면 군정부가 처음 조직될 때부터 편성된 부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군정부시기인 1919년 7월에 의용대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찍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의용대 편성은 남만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촉구하는 의용대 제1중대의 결의안을 통해 일부를 엿볼 수 있다. 그 자료에는 제1중대장(백광운-채찬), 부관, 제1재무과장, 제2재무과장, 참모과 위생부 헌병과 외무경리 피복위원 유격대장 임강현출장대 등의 명칭이 나온다. 중대 규모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합니하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이상룡에 의해 임명된 의용대 총지휘관 김창환이 보낸 문서와 제1중대장 백광운이 보낸 문서도 여러 장 발견되었다. 모두 서로군정서 본부가 이상룡을 따라 액목현으로 이동했을 때인 1922년 음력 5월로 명기되어 있다. 김창환 관련 문서는 ‘명령’ ‘훈령 제19호’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군정서가 아니라 군정서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전부터 그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로군정서가 없어지고 상해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백광운이 내린 명령서는 ‘중제 492호’ ‘중제493호’ ‘중제891호’인데, 앞의 두 문서는 행정과 관련된 것이고, 뒤의 문서는 작전 그것도 국내진공작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작전과 행정이 명확히 구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작전과 관련된 문서가 1922년 음력 5월 10일까지 무려 891개나 있었다는 점이다. 작전이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의용대는 만주와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경찰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국내로 들어가 군수 등 친일파를 처단했다. 일제에 의해 조직되고 급속히 커가던 만주의 친일단체를 박멸하는 것도 주요 임무였다.

의용대 중대장으로는 신흥무관학교 동창인 신헌재와 백광운이 유명하다. 그밖에 문학빈 송문평 하찬린 이석 등의 이름이 나온다. 임강의 의용대 대장으로 많은 활동을 한 신헌재가 진중에서 병사하자 이상룡은 심히 애도하고 백광운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했다.²⁰

독립군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은 1922년 들어 구체화되었다. 1922년 6월 전부터 논의되었고, 6월 이전 통합 합의를 본 바도 있던 통군부가 구체화되었으나 통합군사단체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통군부보다 더 통합성이 강한 통의부는 1922년 8월에 출범했다. 통의부의 군대는 의용군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상룡 등은 통의부가 단순한 무장투쟁지상주의를 펴는 것을 반대하고, 반일투쟁의 장기성을 감안한 튼튼한 반일기지건설을 도모해, 이주민의 자치와 군사를 겸한 자치노선을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

20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앞의 책 하, 160쪽

통의부에는 김동삼 양규열 등 군정서 간부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지만, 군정서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미의 연구에 따르면, 군정서는 1922년 여름 중앙총회를 열어 조직을 재편했다. 이때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용만의 취임은 밀정 혐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1923년 11월 이상룡 여준 김동삼 양규열 김창환 등이 참여해 화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서간도의 군정서를 폐지하여 새로운 군정서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자치회를 두고 재만조선인을 통치하기로 했다. 1924년 3월 이장녕을 회장으로 한 전만통일주비회의가 조직되었고, 그해 11월에 전만통일회의가 열렸다. 그리하여 군정서 통의부 등 8개 단체가 정의부를 조직했다. 이상룡이 역설한 이주민의 자치와 군사를 겸한 자치정부가 조직된 것이다. 1924년 12월 31일 군정서 정무원 이탁 김원식 이진산 명의로 군정서를 해체한다고 밝히고, 군정서에 바친 성충을 정의부에 바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금일의 정의부는 전일의 군정서를 계속하여 국토 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도모” 한다고 밝혔다.²¹

21 김정미, 앞의 논문, 164-175쪽

토론문

신흥무관학교와 군정부·서로군정서

황민호

숭실대 사학과

이 논문은 서중석 선생님께서 서로군정서가 설립 초기에 군정부에서 서로군정서로 변화되는 과정과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물들의 청산리전투 참여와 특히 서로군정서와 한족회를 주도했던 석주 이상룡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2001년에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서중석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특별한 이의는 없으며, 다만 제가 논문을 읽다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든 몇 가지를 간단하게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선생님께서는 논문에서 석주 이상룡이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그것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 것은 뻔한 일’이라고 했다거나 ‘상해기관’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해임시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24년 10월 정의부의 독판으로 선출된 석주 이상룡은 1925년 9월 임시정부 국무령에 추대되어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을 위해 활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상룡 상해임시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며,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 한번 여쭙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논문에서 서로군정서에서는 윤기섭을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하였으며, 윤기섭은 1920년 안에 군사력의 강화와 적극적인 군사정책의 실시를 건의하였으나 임시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윤기섭은 1920년 2월 임시정부 간도위원의 자격으로

로 상해에 파견되어 안창호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이후 임정이 군사방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임정의 입장에서는 윤기섭을 대표로하는 간도지역 독립운동세력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만주에 임정의 지휘를 받는 광복군총영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 활동의 전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정은 항일무장투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만주지역 독립운동세력의 요구에 대해 안창호를 중심으로 임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윤기섭도 이점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기섭이 군사방면에 대한 자신의 요구에 대해 임정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고 판단했다면 임시정부에 남아 끝까지 활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임정은 윤기섭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정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지청천 장군과 함께 3·1운동 직후 만주로 탈출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찾아 갔던 김경천의 회고록인 『擎天兒日錄』에 보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본 무관학교는 올해 3월까지 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가 독립선언을 이후로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군사학을 시작한 것이니 범사에 매우 유약하다’라고 하여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한번 여쭙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선생님께서는 논문에서 이상룡에 대해 만주로 가면서 이상룡이 흡스와 스피노자의 저서를 읽었으며, 이 시기 신민회의 일부에서 공화제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상룡처럼 민주정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안동의 거유 김홍락에게 수하한 정통 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상룡의 민주정치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國民代表會 참여

조철행
국가보훈처
연구원

1. 머리말

전국적 전면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이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좌절된 뒤, 민족운동 전선에서는 전체 독립운동세력을 이끌어갈 최고기관 조직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고기관 수립 운동은 大韓國民議會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통합논의에서 출발하였다. 통합논의는 ‘漢城政府’ 계승을 조건으로 합의되었지만 ‘승인’, ‘개조’ 분쟁과 최고기관의 위치선정 문제 등의 차이로 대한국민의회가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임시정부는 한인사회당이 참여함으로써 부분적 좌우연합정부의 성격을 가졌지만, 1921년 1월에 들어오면서 지향이념·운동노선·조직형태 등의 차이로 내부 구성원이 탈퇴하기 시작했다. 1921년 5월경에는 임시정부는 그 통일적 독립노선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거의 상실해 갔다.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되면서 임시정부 개조론과 임시정부 반대세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최고기관을 조직하자는 창조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개조론과 창조론을 제기한 운동세력들은 국내외 독립운동단체와 지역 대표를 소집하여 국민대표회를 개최하여 통일적 지도기관과 운동노선을 세우자고 요구했다. 그 결과 국민대표회의는 상해에서 1923년 1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내외 지역·독립운동단체 대표 125명이 참석해 개최되었다. 이렇게 국민대표회는 국내외 전체 독립운동세력들이 참가하여 公論과 公

決을 통해 통일적 운동조직과 노선을 마련하려고 했다.¹

여기서 ‘국민대표회’라는 개념은 국민대표회 소집요구·준비(1921. 2~1923. 1. 2), 國民代表會議 개최(1923. 1. 3~1923. 6. 7)까지의 활동을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 폐교할 때 까지 독립전쟁으로 나라를 되찾고 공화주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다.²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 신흥무관학교는 경학사·부민단·한족회·서로군정서를 모계단체로 운영되었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은 주로 서간도 지역 각 단체 독립군의 주축이 되었고 북간도 지역으로 가 그곳에서 군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거나 독립군에서 활동했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란 모계단체와 신흥무관학교 폐교 후 대한통일부 등의 단체 소속으로 국민대표회에서 활동한 인사에 한정해 썼다.

이 글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 '국민대표회' 시기 지향한 운동조직과 노선을 소집요구와 회의 진행과정에서 살펴보려는 데 있다.

2. 국민대표회 소집요구와 ‘트르프락치야’ 참여

국내 3·1운동은 북간도 용정에서 3·13으로, 서간도에서는 3월 17일 유하현, 3월 19일 삼원포 등의 시위로 이어졌다. 그리고 1919년 4월 서간도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단체인 부민단·자신계·교육회 등이 한족회로 통합되었다. 이어 한족회는 군정부를 조직하였다.

1 노경채, 「국외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 김희곤, 「국민대표회의와 참가단체의 성격」 『중국국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 조철행, 「국민대표회(1921-1923) 연구 -개조파·창조파의 민족해방운동론을 중심으로」 『史叢』제44집, 1995 ; 박윤재, 「1920년대 初 民族統一戰線運動과 國民代表會議」 『學林』제17집, 1996 ; 李明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 尹大遠,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分화(1919~1930)』, 서울대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6) ; 이현주, 「국민대표회의에서의 '개조론' 연구」 『도산사상연구』 제6집, 2000 ; 임경석, 「국민대표회의의 원내 대표원단 연구」 『한국사학보』51, 고려사학회, 2013.

2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40,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박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군정부는 동년 11월 상해 임시정부 관할하의 서로군정서로 개편되었다.³ 이즈음 서간도 지역의 한족회·서로군정서는 임시정부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족회는 남만대표로 李震山·尹琦燮을 상해로 파견하였다. 이진산·윤기섭은 1920년 3월 3일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을 인정받고⁴ 동월 16일 李裕弼·金弘敍 등과 임시정부 국무원에 독립운동 방침·재정·독립전쟁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16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했다.⁵ 나아가 이진산·윤기섭은 임시의정원 의원 王三德·이유필·김홍서 등과 軍事에 關한 提議案을 제출하여 서간도의 독립전쟁 계획을 임시의정원이 채택하게 했다. 그것은 군사기관이 만주로 이동하고 금년(1920년) 내에 혈전을 개시하자라는 내용이었다.⁶

1. 本年 五月 上旬 以內로 適當한 地點에 軍事會議를 召集하여 軍事計劃을 切實히 確立하며 軍務進行의 方針을 周到히 規定할 일
2. 軍務部의 陸軍, 軍事, 軍需, 軍法의 四局과 其他 모도 軍事機關을 滿洲(中國 東三省과 俄領沿海黑龍 兩州를 包含함)에 移置할 일
3. 今年 內에 少하여도 滿洲에서 步兵 十個 乃至 二十個 聯隊를 編成 訓練할 일
4. 今年 內에 少하여도 士官과 準士官 若一千人을 養成할 일
5. 今年 內에 戰鬪를 開始하되 少하여도 步兵 十個 聯隊를 出動하도록 할 일

이 같이 서간도지역 주도 인사들은 ‘庚申慘變’ 이전까지 임시정부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일으키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21년 1월 국무총리 이동휘가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상해지역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대표회 소집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개조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민대표회 개최 요구는 1921년 2월 상해 지역 독립운동가 高一彪·金昌淑·金振宇·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권, 1976, 28-29쪽.

4 「臨時議政院記事」 『독립신문』 1920.3.6

5 「大政方針質問」 『독립신문』 1920.3.20

6 「尹琦燮氏等の 提出한 軍事에 關한 建議案이 一人의 反對가 無히 最終日의 議政院을 通過하다」 『독립신문』 1920.4.3

金剛山(金用源)·鄭寅教·柳振昊·柳健赫·劉禮均·李民昌·朴殷植·孫永稷·安秉瓚·崔東旻·왕삼덕·元世勳 등 15명이 서명한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선언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론화되었다. 선언서의 내용은 “전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통일적 강고한 政局을 기도”하고 “群策과 群力を 종합하여 독립운동의 最良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대표회를 개최하자는 것이었다.⁷ 선언은 상해 임정 수립이 조직과정에서 민족운동세력들의 협의에 의하여 조직되지 못했고 ‘정부’라는 조직·제도가 갖는 형태상의 한계로 새로운 인물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임정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임시의정원은 그 분열을 조정할 없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통일적 민족운동의 지도기관과 운동노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표회에서 自決 즉 公決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1921년 3월 15일 상해에서 안창호·金澈·李鐸·朴殷植·朴甫然(淵?) 등을 위원으로 임정개조를 통해 민족해방운동세력들을 규합하려는 목적으로 大韓國民代表會準備促進會를 결성하였다. 촉진회는 “현 임시정부는 박약하여 국민의 신용을 해치고 있으므로 도저히 우리를 국민대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속히 이를 개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명칭을 폐지하고 委員制度로 조직을 변경할 것, 대표의 수는 정부측, 미령, 노령, 북만과 간도, 상해공산당에서 각 4명으로 할 것, 회의 장소는 상해로 하고 기일은 늦어도 금년 6월 중순까지 실행할 것”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⁸

이는 민족해방운동세력의 공결로서 임정의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 이 임정 조직 개조안은 한인사회당 당수이며 임시정부 국무총리인 이동휘가 임정의 혁명적 집행위원회⁹로서의 개혁안을 일정정도 수용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임정

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 임정편 3, 탐구당, 1973, 342-343쪽; 「反假政府黨の檄に文關する件」1921.2.18 『朝鮮獨立運動』Ⅱ, 138-139쪽;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276-277쪽.

8 「國民代表會 開催 準備狀況에 關해 1921年 3月 21日字로 在上海 總領事가 外務大臣에 報告한 要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277-278쪽.

9 이동휘는 자신의 임정개혁안이 거부되자 임정을 탈퇴했다.(이동휘박진순, 「보고: 외교인민위원회 치체린동지에게」, 1921.10.16 모스크바,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49 л.9-16, 1쪽)

개조안은 상해파 고려공산당, 김동삼을 대표로하는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연합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경신참변을 피해 액목현에 집결한 서로군정서는 1921년 5월경 군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¹⁰ 이들은 일단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합과 최고 지도기관으로 임시정부의 내분을 수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 통합은 1922년 봄 환인현에서 결성된 ‘南滿統一會’에서 대한통군부(그해 8월 대한통의부로 확대개편)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서간도 민족운동단체에서도 임시정부 개조에 대한 주장이 제출되었다. 1921년 5월 26일 額穆縣에서 서로군정서·한족회의의 주요 간부들인 여준·이탁·김동삼·곽문·이진산 등은 아래와 같은 결의서를 채택하여 당시 임시의정원 의원의 서간도 대표이던 윤기섭에게 보냈다.¹¹

1. 현재 間西代議士를 紹介하여 임시의정원에 정부개조의 필요를 제의케 할 일.
2.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확실한 이상, 그 행위의 주창자에게 퇴거를 명할 일.
3. 의정원에 제출한 개조 의안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현임 간서의원을 소환할 일.
4. 위 의안의 결정전에 본 기관대표의 명의로 정부를 파괴하려는 제3단체의 참가를 불허할 일.
5. 양 방면에 대한 제의 또는 권고가 무효일 때는 간서는 간서 자체를 保障 自퇴할 일.
6. 위 조항의 실행을 희망하는 이진산을 특파하여 자세한 조항에 대하여는 일체 특파원의 구술에 위임한다.

그리고 이진산은 액목현회의의 특파원으로 1921년 7월 12일 상해에 도착해 임시정

10 金炳基, 『참외부연구』, 檀國大大學院博士論文, 2005, 16-19쪽.

11 『朝鮮民族運動年鑑』 『朝鮮獨立運動』 II, 276쪽.

부에 “李承晩 및 그의 공모자 전부를 추방하고 동인 등을 성토할 것, 정부는 전에 33인이 서울에서 조직한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건설할 것, 전에 고창되었던 통일책은 현재 어떠한 정도로 진행할 것인가 회답할 것” 등을 3일 이내 회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회답을 주지 않거나 불만족한 회답을 하면, 윤기섭을 소환하며 서간도는 전연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성명하였다.¹²

위 결의서는 임정개조와 위임통치청원자의 임정에서의 퇴거, 임정 부인세력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고 있다. 임정 수립 이후 한때 그 산하에 들어간 서간도지역 민족해방운동세력에서도 임정개조를 주장하게 됨으로써 임정 개조의 필요성은 더욱 공감대를 얻기 시작하였다. 즉 서간도 민족운동단체의 임정개조론은 무장투쟁을 운동노선으로 내세우면서 위임통치청원 관련자의 임정에서 퇴거와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대표회 소집요구는 제일 먼저 1921년 5월 19일 상해에서 국민대표회기성회가 조직되면서 실제화되었다. 이어 북경과 천진 기성회가 연합하여 1921년 8월 국민대표회주비회(이하 주비회)가 조직되었다.¹³ 주비회는 회의 지점, 회집기간, 대표선출 방식 등을 결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경비문제, 워싱턴회의(태평양회의 : 1921.11.12-1922.2.6)에 대한 ‘기대’, 연호문제 등으로 연기되다가 1922년 초 12명의 위원으로 새로운 주비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착수하였다.

주비회는 1922년 5월 10일 “과거의 모든 분규 착종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완전 확실한 방침을 확립하여 아등의 독립운동이 재차 통일적 조직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국민대표회주비위원회선언」을 발표했다.¹⁴

상해파 김철수는 1922년 말경 상해에 도착하여 안창호·김동삼·임정축 등과 각 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것을 토대로 일치행동을 하기로 합의했다.¹⁵ 이 결과 상해파 김

12 「國民代表會의 經過와 協誠會의 對策」1921.8.5『일본외교사료관자료』(독립기념관)

13 「國民代表會議에 對하야(中)」『독립신문』1922.8.12

14 「國民代表會議 籌備委員會 宣言書」『韓國獨立運動史』資料 3(臨政篇 III), 343-344쪽.

15 「김철수 친필유고」, 357쪽.

정하·현정건·왕삼덕, 양남파(경상, 전라) 김철·김갑·배천택, 양서파(평안, 황해) 안창호·이탁·선우혁 등으로 ‘삼삼프락치야’를 조직하고 민족해방운동의 최고기관으로 상해 임시 정부를 개조할 것을 결정했다.¹⁶ 삼삼프락치야는 김철수가 상해로 온 1922년 말경에서 늦어도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1월 3일 전에는 조직되었을 것이다. 그 추동은 ‘선공산당조직 후민족당조직론’을 가진 상해파가 1922년 10월 베르흐네우진스크 고려공산당통일대회를 통해 통일된 공산당이 조직되었다고 단정한 결과였다.¹⁷

삼삼프락치야는 다음과 같은 개조론에 대한 기본입장을 갖고 있었다.¹⁸

1.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을 조직적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인 즉, 그 중요한 착안점이 통일에 있다. 현재 우리 운동의 통일을 기성하려면 내지 인민이 신뢰하고 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서열강이 공인하는 상해 임정을 개조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상해임정이 활동 성적이 없고 추태가 없지 않았으나 이는 다 자연인의 결함이요 기관 즉 법인의 죄가 아닌 즉 자연인을 도태함은 가하되 기관을 폐지하여 肅正의 擧에 출함은 불가할지라 그런고로 차를 시의에 적당하도록 개조함이 득책이다.
3. 만약 임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국민대표회의에서 신기관을 산출한다하면 상해 임정을 옹호하는 군중은 의연히 분립하여 두 개의 기관이 각각 존치되어 싸움의 화근을 또 다시 일으키는 해가 될 것이다.

삼삼프락치야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흥사단,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신흥무관학

16 「오창환박병세보고」, 10쪽 ; 「國民代表會의 經過에 관해 1923년 2월 27일자로 朝鮮總督府警務局長이 外務次官에 通報한 要旨」 『韓民族運動史料(中國篇)』, 308~309쪽.

17 그러나 이 대회는 대다수 이르쿠츠크파가 자격심사문제로 탈퇴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후 두 고려공산당의 해체와 당조직 준비기관인 꼬르뷰로가 조직되는 원인이 되었다.

18 吳昌煥,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923.7,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72 л.148-167, 8쪽 ; 김규식·윤해, 「개조와 창조 그룹의 분열과 그 원인」, 1923.11.24,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73 л.233~234.

교 관련자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상해 임정이 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해파 같이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개혁을 지향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임정 각원의 개선, 헌법 개정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3. 국민대표회의의 진행과정과 임정개조론

국민대표회의는 본회의에 앞선 임시회의 15회(1923.1.31~1.29)와 1923년 1월 31일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정식회의 59회(1923.2.2~1923.6.7)로 총 74회가 개최되었다.¹⁹ 5월 15일부터 공개적으로 개조파가 탈퇴하기 시작한 이후의 정식회의는 창조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²⁰

임시회의에서는 대표 자격심사, 정식 간부 선출, 회의규정 등이 진행되었다. 임시회의에서 진행된 간부 등의 선임과 대표자격 심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3일의 1차 회의에는 62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대다수가 창조파의 입장을 가진 대표였다. 그것은 1월 3일 회의 이전에 각 지역·단체에서 상해로 파견된 대표와 상해에 체류하며 위임받은 대표 중 정식대표로 확인되는 인사들 가운데 3/4이 창조파²¹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파가 임시회의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임시의장 자리는 안창호에게 내어 주었지만 자격심사위원 등의 핵심 요직은 대부분 장악하였다. 임시의장 안창호는

19 「國民代表會議 開幕式」『독립신문』1923.2.7 ; 『독립신문』1923.1.9~1923.6.13 ; 吳昌煥,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923.7 ; 『동아일보』1922.12.19~1923.7.1 ; 『조선일보』1922.12.2~1923.6.30.

20 발표자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를 비밀회의로 나누었는데(조철행, 「국민대표회(1921~1923) 연구」 『史叢』44, 1995, 158-159쪽) 5월 15일부터 개조파가 공식적으로 탈퇴성명을 발표하지만 정식대표의 참석이 봉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회의로 나눈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실제 마지막 회의였던 6월 7일에도 탈퇴 성명이 있었다.

21 「國民代表會議하와이代表來着」1922.8.22~「代表員 陸續來到」1922.12.23『독립신문』; 임시회의는 시베리아에서 온 30명의 대표가 일치단결하여 집행부를 장악했다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遲耘 金綴洙』, 1999, 58쪽)

서기에 유선장·배천택을 지명했다.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오창환·유선장·허동규·강구우·김동삼, 회의규정기초위원회는 윤해·신숙·장건상·오창환·박건병 등이 선출되었다.²² 즉 안창호·배천택·김동삼을 제외하면 대부분 창조과 인사들이 대표심사와 회의규정 등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하였다.

이밖에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으로는, 1월 11일 회의규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회의규정을 윤해가 보고한 뒤 13·15·16·17일 회의를 거쳐 國民代表會議規程이 통과되었다.²³ 이 규정에 따라 1월 18일 회의에서 정식간부를 선출했다. 이때부터 삼삼프락치야는 제일 먼저 임원선거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여²⁴ 의장 김동삼, 부의장 안창호, 비서장 배천택, 비서 김철수 등의 삼삼프락치야가 주요 직책에 선출되게 했다.²⁵ 특히 안창호는 위임통치청문제로 대표자격문제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해와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월 29일 임시회의에서는 정식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하여, “1. 선서 및 선언, 2. 보고: 국민대표회주비회 경과사정보고(서면)·각 지방 급 단체의 사정보고(서면), 3. 시국문제”까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선서 및 선언만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창조과), 시국문제만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삼삼프락치야)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은 두 개의 의안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절충되었다.²⁶

국민대표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대표는 125명이었다.²⁷ 이 가운데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다.

金東三(서로군정서), 金世赫²⁸(대한독립단), 金履大(대한통의부), 金昌煥(대한통의

22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1.24 ;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23 「國民代表會議規定」『독립신문』1923.1.24, 1.31.

24 「국민대표회의의 경과사정」, 2쪽.

25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2.7 ; 「국민대표회 규정 및 회의상황의 건」1923.2.10『도산안창호자료집』 I, 국회도서관, 1997, 24쪽.

26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27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1.24~1923.3.14 ; 吳昌煥,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923.7(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집5 국민대표회의 I, 2011)

28 金擎天의 별명((吳昌煥,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923.7). 본명은 金光瑞(조선총독부경무국, 『國外ニ於ケル容疑

부), 金衡植(한족회), 裴天澤(서로군정서), 李震山(한족회), 李青天(고려혁명군특립연대) 등이다.²⁹ 이 가운데 북간도에서 무장단체에서 활동하던 김세혁과 이청천은 창조파의 입장을 가졌다.

대표적 신흥무관학교 관련자인 김동삼은 국민대표회의의 참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처음 서간도측에서 요구한 북경 군사통일회의가 추진하는 제2정부 수립운동의 반대와 위임통치청원자의 입장에서 퇴거라는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모든 일을 充分히 討議하여 改할 者は 改하고 肅할 者は 肅하여 融和的의 圓滿한 效果”를 얻기 위한 것이라 여겨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것이었다. 둘째, 일본경찰의 불법적 국경 침입과 인명의 살상, 중국 관군·토비의 약탈, 동포의 무리한 금전 징수 등으로 이산의 처지에 빠진 서간도 동포의 구제책을 강구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구제책의 하나로 “軍事區와 民政區를 截然히 하여 軍民이 混同치 안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軍民이 混同된 곳에는 自然히 平民도 軍人의 當하는 境遇를 함께 當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軍事는 一定한 特殊地帶에서만 經營하여 敵의 施設을 破壞하여 敵을 脅威하고 一般의 民氣는 此를 蘇盛케 하여 우리의 基臺을 鞏固케 하여야 될 줄 압니다.”³⁰ 하여 임정을 개조하여 통일지도기관으로 재조직하고 군사중앙기관을 수립하여 서간도 등의 무장단체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923년 1월 31일 국민대표회의의 개막식이 거행되고 2월 2일부터 정식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식회의에서는 각 지방 단체의 경과보고, 의사일정 채택, 각 분과위원의 선출, 헌서 및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2월 2일 회의에서는 “4. 독립운동의 대방침: 군사·재정·외교, 5. 생계문제, 6. 교육문

朝鮮人名簿』, 1934, 69쪽).

29 金澹(신개령이복)[金鐵의 개명(「改名廣告」『독립신문』1923.3.1). 한족회, 서로군정서에서 활동], 羅愚(대한광복군단)[1914년 통화현 쾌대무자 광동소학교 교사, 1915~1917년 서간도교육회 시무, 1919년 길림군정사교도과 시무(흥사단이력서, 독립기념관소장).], 沈龍俊(天摩隊), 楊承雨(昌碧義勇團), 李鏞(평남)[부민단 서무장 李沔, 교육 副會長 李鏞(「排日 鮮人秘密團體 狀況取調의 건」1916.8.5)] 등도 관련자로 볼 수 있다.

30 「民情을 紹介코저」『독립신문』1923.1.17

제, 7. 노동문제, 8. 국호 급 연호, 9. 헌법, 10. 과거문제: 위임통치청원사건·자유시사변·40만원사건·虎林密山사건·관전통의부사건·기타 사건, 11. 기관조직, 12. 신사건, 13. 선포” 순으로 의사일정이 통과되었다.³¹ 삼삼프락치야의 입장과는 다른 8·9·11 안건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삼삼프락치야는 정식회의 초반에 논의될 시국문제에서 임시정부 개조 원칙만 합의된다면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나중에 개조 원칙에 합의만 되면, 公決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한다는 것이었다.³²

2월 3~6일 회의에서는 6개 분과와 2개의 위원회 위원이 아래 표와 같이 선출되었다.³³

분과·위원회	선출월일	위 원
군사	2월 3일	이청천·신일한·배전택·김동삼·김철·최준형·정신
재정	2월 5일	강구우·이상호·백낙현·윤정현(3.5일 한승우)·왕삼덕·손정도·이탁
외교	2월 5일	윤해·박애·박응칠·여운형·현정건·선우혁·이민창
생계	2월 5일	원세훈·허동규·김철수·김우희·유선장·강수희·장봉익
교육	2월 6일	정학수·박종근·방원성(2.14일 이한신)·이중호·전창순·유시언
노동	2월 6일	문시환·임원·방국춘·유신·장지호(3.9일 안기옥, 3.12일 양현)·이하소·강일
헌법기초	2월 6일	신숙·김철·윤해·이진산·이민창·유시언·안창호
과거문제조사	2월 6일	박응칠·이상호·송병조·정광호·장봉익·강구우·노무녕

※ ()는 보결 일자 및 대표 이름임

2월 7~8일 회의에서 선서 및 선언서 기초위원인 정광호·박건병·이민창 명의의 선서 및 선언서 초안이 배포되었다. 선언서 초안은 과거운동에 대해 “총체운동의 통일적 대단합체를 조속히 이루지 못했고, 일치된 진행으로 독립의 대업을 아직껏 이룩하지 못하고서 현재 분규와 위급에 당면”했기 때문에 “본 국민대표회는 국민적 대회합으로서 무상의 존엄성과 최고의 권위를 지니며, 완전한 통일을 공고히 이룩하여 광복운동의 근본적 방침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표방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전민족의 지고 무상한 최대의 권위이며, 또한 민족적 일체의 모

31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3.1;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32 임정개조 입장을 확인한 임시의정원 의원 7명은 2월 2일 대표 인정을 받았다.(「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33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3.1.

든 해결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 권위를 본받고, 그 준엄성을 받들어 국민의 대동단결을 힘써 도모하여 원만한 결의로 국가의 대권 및 헌법과 운동의 방법 및 대책을 확정하여 통일된 기관 밑에서 독립의 대업을 이루자고 주창했다. 선서 초안은 “본 대표회의의 공의와 공결로 나라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 일치단결하여 매진할 것을 이에 선서함”이라 하여 국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대표들에게 다짐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초안에 대한 장시간 토론 끝에 결국 수정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여 이진산·김갑·김상덕이 당선되었다.³⁴ 3명의 수정위원은 삼삼프락치야 소속으로 개조론의 입장을 가졌다.

이들이 수정한 선서문·선언서이 2월 10일 회의에서 보고된 뒤, 2월 14일에 宣誓文이, 이어서 19일에 선언문이 통과되었다.³⁵

이것은 “본 국민대표회의의 公決에 절대 복종”한다는 선서는 대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삼삼프락치야가 공결로써 임정 개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대변한 것이고 “본 국민대표회의는 2천만 민중의 公意를 體한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였다는 선언은 임정을 폐지하고 국민대표회의에서 최고기관을 조직하는 창조파의 입장이 절충 반영되어 통과되었던 것이다.

삼삼프락치야는 다수결로 임정개조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회의를 관망하던 임시의정원 의원 손정도·김홍서·김현구 등 7명이 2월 2일 회의에 참가하여 대표자격을 인정받았다.³⁶

나아가 임정에 정부를 계승할 것을 조건으로 임정과 임시의정원을 해산하고 모든 것을 국민대표회의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³⁷

그 협의는 1923년 2월 28일부터 오영선의 중개로 삼삼프락치야 김동삼·왕삼덕·이진

34 「국민대표회의의 경과에 관한 건」 1923.2.27『도산안창호자료집』 I, 국회도서관, 1997, 45-48쪽.

35 國民代表會議, 「宣佈文 憲法 機關組織 附 決議案」, 1923.6.7,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72 л.109-135об ; 「宣誓文」 「宣言書」 『독립신문』 1923.3.1

36 임시의정원 의원 7명이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것은 상해파가 태도를 일변하여 자기들의 의견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4쪽)

37 『독립신문』 1923. 3. 1 ; 「국민대표회의의 경과사정」, 4쪽.

산·김갑·김철 등과 임정측 장봉·조소앙·이시영·노백린 등은 임정 계통에 관해 교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측은 삼삼프락치야 대표자의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³⁸

1. 의정원에서는 각도 대의사를 보선하여 이전같이 각도 대의사를 충실히 할 것.
2. 정부에서는 이미 각 총장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지 않고 있는 김구·홍진 두 사람은 내각에 들어와 각의를 충실히 하는 동시에 의정원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의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그것을 가결시켜 내각회의에서도 찬동하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퇴직시키고 의정원과 정부를 대표회에 일임하여 계통시킬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이유필·조상섭·오영선 등은 대표로 회의에 출석시킬 것.

그 결과 3월 3일 회의에 임시의정원 의원 이유필·조상섭·오영선·김인전이 출석해 대표자격을 얻었다.³⁹ 삼삼프락치야는 임정과도 위임통치청원자의 퇴거 등을 받아들여 임정을 개조하자는 원칙에 합의하여 갔다. 삼삼프락치야는 임정을 절대 옹호하여 계통을 존속하고 개조만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창조파에게는 타협할 목적으로 三大政見을 결정하였다. 정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⁰

1. 국민대표회의는 결의한 정책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정원으로 하여금 국민대표회의의 결의안대로 일치 통과케 하자함
2. 임시정부와 의정원으로 하여금 그 직권을 국민대표회의에 위탁하여 국민대표

38 「國民代表會 繼統派와 假政府間의 協商에 관한 건」1923.3.13『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4)』

39 이날 회의에 임시의정원 의원 4명이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것은 대표위임장 수리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6쪽)

40 삼삼회의는 이 삼대정견의 대표인물 3사람씩을 선출하여 총 9명의 대표로 조직되었다 한다.(「政府擁護의 三三會議」『조선일보』1923.4.24)

로 하여금 대국방침을 새로 정하게 하자함

3. 국민대표회의의 결의는 반드시 의정원 결의와 동일한 보조를 가지게 하여 양방
이 다 타협 결의하자함

3월에는 5·6·8일 3일에 걸쳐 대표들의 시국문제 의견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삼삼프
락치야의 임정개조론이 1923년 3월 9일 회의에서 신이진(윤자영) 등 19명의 제의안으
로 구체화되었다.⁴¹

1.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의 독립운동으로써 세계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동일
한 전선을 作하기로 함.
2.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혈전에 主重하여 조직적으로 진행할 일.
3. 본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헌법·제도 및 기타 일체를 실제운
동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기로 결의함.

신이진 등의 제의안 중 제1항은 원안 의결되고 제2항은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의
독립운동으로써 혈전에 주중하여 조직적 계획하에서 급진적 보조로 진행할 일”로 수
정가결되었다.⁴² 그런데 제3항의 재 상정 문제로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어 12일 신조직건설안 등의 제의안이 공포되면서 양 파 간의 의견 대립이 격화되
기 시작했다.

개조안과 창조안이 대립되자 3월 21일 회의에서 군인구락부원 12인은 “본 국민대표
회의는 과거 분립적 독립운동기관은 금후(1월 3일) 존재를 일체 불허하는 동시에 연하
야 상해 임시정부도 과거는 認하고 금후의 존재는 부인하고 오직 실제 독립운동에 적

41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4.4；윤자영 등 18인이 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6-7 쪽)；ЮНДЯЕН, ЛИДОНХЫ и ХАНМЕНШЕ, 「ДОКЛАД ИЗ ШАНХАЯ」(윤자영이 이동휘·한명세에게, 「상해로부터의 보고」), 1923.3.10,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73 л.49-50[이하「윤자영보고」1923.3.10]

42 「國民代表會議의 經過」『독립신문』1923.3.14；「국민대표회의의 경과사정」, 8쪽

합한 통일적 최고기관을 공고히 조직하기로 결의함”이라는 시국문제에 대한 긴급제의를 발표하였다. 군인구락부는 회의에 참석한 군인들과 상해에 있는 군인 12명으로 조직된 것인데 그 설립정신은 不偏不倚하게 特立하여 실지적 운동에 주력하도록 국민대표회의의 여론을 환기하자는 것이었다.⁴³ 이 긴급제위는 군인구락부 12명이 서명한 동일한 내용의 성명서로 5월 3일 회의에서 배포되었다. 그리고 실행조건으로 “성명의 의견을 찬동하는 이는 우리들과 함께 국민대표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차에 반대하는 이는 한갓 편견만 가지고 고집하여 분규를 做出하는 자로 인하고 국민대표회의에 동석함을 불허하기로 함, 우리들은 이로써 국민대표회의를 최후 일각까지 적극 진행하기로 함”을 내세웠다.⁴⁴

군인구락부는 지역별로 노령 김세혁·이청천·임병극·최준형·홍진우·채영, 북간도 김중훈·신일현·안무, 서간도 김창환·배천택·채군선 등으로 나뉜다. 노령·북간도 대표 9명은 창조파였고 서간도 대표 3명은 삼삼프락치야였다. 군인구락부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삼삼프락치야와 임시의정원의 협의가 무산되어가자 삼삼프락치야가 자기들의 주장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면 탈퇴하자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⁵

이름	본적	생년	파견 단체 · 지역	계파 · 세력	임정문제
金世赫	서울	1883	대한독립단	노령	창조
金重勳			북간도청년회	고려공산당(이), 북간도	창조
金昌煥	경기	1872	대한통의부	서간도	개조
裊天澤	경북	1892	서로군정서	서간도	개조
申日憲		1890	의군부산포대	북간도	창조
安武	함북	1883	대한국민군사령부	고려공산당(상), 북간도	창조
李靑天	서울	1888	고려혁명군특립연대	고려공산당(이), 노령	창조
林炳極	평안	1885	고려혁명군사령부	노령	창조
蔡君仙	평남	1895	천마대	서간도	개조

43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9-10쪽

44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3쪽 ; 『국민대표회의기사』 『독립신문』 1923.6.13

45 배천택이 군인구락부회의의 석상에서 개조파가 탈퇴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3쪽)

蔡英	함남	1882	대한국민혈성단	고려공산당(상), 노령	개조
崔峻衡	함북	1883	고려혁명군	노령	창조
洪振宇			그로책코푸한인청년회	고려공산당(상), 노령	창조

이처럼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론과 창조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가자 4월 6일 간부 회의에서 삼삼프락치야 속하던 안창호와 김철수는 각각 임정을 국민대표회의에 참석 시키고 상해파가 제안한 개조안을 취소시키기로 합의했다. 4월 8일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노동문제를 종료하기 전에 무조건으로 국민대표회의에 들어오게 하고 국민대표회의는 새로 創定하는 헌법에 의하여 중앙기관을 조성하기로 결의함”이라는 제의가 통과되었다. 이것은 임정을 국민대표회의에 들어오게 하여 신기관을 조직하면 소위 계통은 ‘자연적 계통’이 되고 창조도 ‘자연적 창조’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⁴⁶ 삼삼프락치야는 임정과 의정원을 하나의 단체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 시켜 국민대표회의 대표가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게 하거나 임시의정원 의원이면서 국민대표회의 대표인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임시의정원회의에서 임정을 국민대표회의에 들어오도록 하는 제안을 제출하여 다수결로 임정개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4월 11일 회의에서는 일단 의사일정 중 군사·외교·노동 문제 등 6분과안을 먼저 결정하고 그때까지 시국문제는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삼삼프락치야의 방침은 임시의정원 의원이자 삼삼프락치야의 한축이 상해파 국민대표인 문시환·김상덕·정광호·정인제·배홍길 등이 1923년 5월 4일 임시의정원회의에 참가하여 “院(임시의정원 : 인용자)의 權道로서 지금 00에 개최된 國民代表會로 하여금 大韓民國臨時憲法을 改正케 하며 또는 기타 重大 事件을 處理케 함”이라는 긴급제의를 제출하여 통과시켰다.⁴⁷

그러나 5월 7일 의정원 의원 金容喆 등 7명이 긴급제의 무효를 선포하고, 임시정부

46 「국민대표회의의 경과사정」, 9쪽.

47 「通過된 緊急提議」 『독립신문』 1923.6.13 ;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1-12쪽.

국무총리 노백린도 이 긴급제의를 국민대표회의에 이첩하지 않자 효력을 상실하였다.⁴⁸

더욱이 5월 11일 국민대표회의에서 시국문제 토론이 재개됐었지만 안창호·김철수의 합의 내용이 임정에 의해 거부되면서 삼삼프락치야는 국민대표회의에 임정을 참가시켜 헌법을 제정하여 중앙기관을 조직한다는 방침은 좌절되었다.

결국 1923년 5월 15일 국민대표회의에서 양남파로 서간도지역 서로군정서·한족회를 대표하는 김동삼·배천택·이진산·김형식 등 4명은 “금후 완전한 통일을 도모하고 2천만 민회에 합치함에 있어서는 대표회의 공결에 복종할 것이나 만약 의연 분규를 거듭하고 분열하기에 이른다면 우리 단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성명하고 귀환하라”는 소속단체의 통지를 받고 탈퇴했다.⁴⁹

삼삼프락치야 한 축인 서간도 지역 인사들이 탈퇴하고 이어 5월 16일 다른 한 축인 상해파 인물 등 10명이 회의를 부인하고 탈퇴하면서 삼삼프락치야는 그 기능을 상실해 갔다.⁵⁰

안창호는 1923년 6월 2일 “비공식회의로써 양방의 원만한 타협을 구함은 가하되 일부의 대표만이 그냥 정식회의를 진행하여 국호 연호 헌법 등을 作定함은 불가하다”는 通告文을 제출하고 국민대표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⁵¹ 이로써 삼삼프락치야는 해체되었다.

군사분과 위원 이청천·배천택·최준형·신일헌은 군인구락부원이기도 했다. 이들은 서·북간도와 노령의 대표적 무장단체의 대표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김철은 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이었고, 김동삼은 서로군정서·한족회에서 정신은 북로군정서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 독립군이다. 군사분과 위원은 무장투쟁의 최전방에서 활동한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군사분과 위원들은 일제와의 직접적 전투과정에 얻은 실전경험과 현지 조선인사회의 처지

48 「其後 院内の 交象」『독립신문』1923.6.13 ;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3쪽.

49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6.13

50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5쪽.

51 「代表會議破裂真相」『독립신문』1923.6.13 ; 『國民代表會議의 經過事情』, 17쪽.

를 이해한 바탕에서 마련된 군사방침은 다음과 같다.⁵²

군사문제

1. 병역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는 병역에 복무함
1. 군비 : 세입총액의 3분의 2로 함
단 군대가 자의로 군자금 모집함을 부득함
1. 군사학 編印 : 군사학을 편찬 인쇄하여 각 군사기관에 배부함
1. 현재 각지 군사기관의 처리 : 현재 각지에 있는 군무기관은 일체 폐지하고 금후로는 개인 혹은 단체로 군대를 사설함을 불허함
단 폐지시키는 軍區制가 실시되는 때로 함
1. 현재 무장대 및 解裝隊의 처리 : 군사시설에 적합하도록 처리함
附項 : 이상 원칙에 기한 제반 계획은 군사최고기관에서 본 회의 종료 후 급속한 기간 내에 군사회의를 소집하여 제정 실시케 함

군사분과 위원이 제출한 군사안이 4월 20일과 23일에 걸쳐 통과된 군사방침은 신 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군사노선을 고스란 담고 있다. 곧 국민대표회의에서 최고지도 기관이 조직되면 그 산하에 군사최고기관을 만들어 군사회의를 소집해 중앙집권적으로 기존 무장단체를 통합하고 군구제를 실시하여 효율적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군사기관에 의한 조직적 무장투쟁을 위해 의무병제로 군인을 모집하여 군사교육을 시키고 총 수입의 2/3를 군사비로 책정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군대가 자의로 군자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한 것은 기존 각지의 무장단체가 망명지역 조선인사회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삼삼프락치야는 상해파 고려공산당계열, 흥사단체열, 서간도 지역 민족운동단체계열이 주축을 이루어 구성되었다. 이들은 운동노선과 지향이념에 따라 차이를 갖고 있었

52 『宣佈文 憲法 機關組織 附 決議案』, 30-33쪽 ; 『國民代表會議記事』『독립신문』1923.5.2

지만 임정 각원 변경, 헌법·제도의 개정, 명치의 변경 등을 개조하여 임정을 민족운동단체의 총지도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4. 맺음말

신흥무관학교관련자들은 모계단체인 경학사·부민단·한족회·서로군정서와 폐교 후 대한통의부 등에서 활동한 인사를 지칭한다. 임시정부가 부분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이들은 임시정부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인정하였다. 이들은 '경신참변' 이전까지 임시정부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일으키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21년 1월 국무총리 이동휘가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상해지역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대표회 소집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개조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21년 2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선언이 발표되고 동년 3월 15일 대한국민대표회준비축진회가 임시정부를 개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서로군정서·한족회의 주요 간부들은 1921년 5월 임정개조와 위임통치청원자의 임정에서의 퇴거, 임정 부인세력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는 임정개조론을 공포하였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은 국민대표회의 참가를 결정하고 상해파 김정하·현정건·왕삼덕, 양서파(평안, 황해) 안창호·이탁·선우혁 등으로 이루어진 '삼삼프락치야'에 참여하고 민족해방운동의 최고기관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개조할 것을 결정했다. 1월 18일 회의부터 삼삼프락치야는 제일 먼저 임원선거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의장 김동삼, 부의장 안창호, 비서장 배천택, 비서 김철수 등의 삼삼프락치야가 주요 직책에 선출되게 했다.

1923년 2월 28일부터 오영선의 중개로 삼삼프락치야 김동삼·왕삼덕·이진산·김갑·김철 등과 임정측 장봉·조소앙·이시영·노백린 등은 임정 계통에 관해 교섭하기 시작했다. 삼삼프락치야는 임정과도 위임통치청원자의 퇴거 등을 받아들여 임정을 개조하자는 원칙에 합의하여 갔다.

삼삼프락치야의 임정개조론이 1923년 3월 9일 회의에서 신이진(윤자영) 등 19명의 제의안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본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헌법·

제도 및 기타 일체를 실제운동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기로 결의함”이라는 재상정 문제로 창조파와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되었다.

삼삼프락치야는 임정과 의정원을 하나의 단체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시켜 국민대표회의의 대표가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게 하거나 임시의정원 의원이면서 국민대표회의의 대표인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임시의정원회의에서 임정을 국민대표회의에 들어오도록 하는 제안을 제출하여 다수결로 임정개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삼삼프락치야의 방침은 임시의정원 의원이자 삼삼프락치야의 한축이 상해파 국민대표인 문시환·김상덕·정광호·정인제·배홍길 등이 1923년 5월 4일 임시의정원회의에 참가하여 “국민대표회로 하여금 대한민국립시헌법을 개정케 하며 또는 기타 중대사건을 처리케 함”이라는 긴급제의를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러나 5월 7일 의정원 의원 김용철 등 7명이 긴급제의 무효를 선포하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노백린도 이 긴급제의를 국민대표회의에 이첩하지 않자 효력을 상실하였다.

더욱이 5월 11일 국민대표회의에서 시국문제 토론이 재개됐었지만 안창호·김철수의 합의 내용이 임정에 의해 거부되면서 삼삼프락치야는 국민대표회의에 임정을 참가시켜 헌법을 제정하여 중앙기관을 조직한다는 방침은 좌절되었다. 결국 결국 1923년 5월 15일 국민대표회의에서 양남파로 서간도지역 서로군정서·한족회를 대표하는 김동삼·배천택·이진산·김형식 등 4명은 탈퇴하면서 삼삼프락치야는 그 기능을 상실해 갔다.

군사분과에서 통과된 군사방침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군사노선을 고스란 담고 있다. 곧 국민대표회의에서 최고지도기관이 조직되면 그 산하에 군사최고기관을 만들어 군사회의를 소집해 중앙집권적으로 기존 무장단체를 통합하고 군구제를 실시하여 효율적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토론문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國民代表會 참여

윤상원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1923년 1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내외 지역, 독립운동단체 대표 125명이 참석해 통일적 지도기관과 운동노선을 세우기 위해 개최되었던 국민대표회는 비록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당시 명실상부한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총 집결체였다. 국내외의 많은 독립운동단체,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에서는 국민대표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1911년 신흥강습소로 출발하여 1920년 폐교될 때까지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 역시 국민대표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국민대표회는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의 대표들이 참가했고, 또한 각 대표자들마다 취하는 입장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운동 단체들과 그 대표자들이 취했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크게는 개조파와 창조파로 구분되지만, 이전에 상해파로 분류되던 인사들 중 창조파에 가담한 대표들도 있었고, 같은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 중에도 창조파와 개조파로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맥락을 잡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이 발표문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서간도의 독립운동단체와 대표들이 국민대표회에 참가해 벌인 활동을 계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국민대표회 연구에 천착해 왔던 발표자의 공력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삼삼프락치야에 참가한 서간도 대표들과 군인구락부를 중심으로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국민대표회 참여를 분석한 것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토론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 몇 가지 지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삼삼프락치야에 참가한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의 입장을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국민대표회에 대한 입장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삼프락치야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흥사단,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삼삼프락치야는 기본적으로 개조파의 입장을 띠고 있다. 그런데 삼삼프락치야 중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양남과 김철, 김갑, 배천택 중 실제 신흥무관학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인사는 배천택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삼삼프락치야가 조직되는 과정에 김동삼이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삼삼프락치야가 조직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삼삼프락치야가 취한 입장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국민대표회에 대한 입장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위의 의문은 군인구락부로 범주를 확대하면서 좀 더 복잡해진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 중 김세혁(김경천)과 이청천은 창조파에서 활동한다. 발표자는 이 두 사람이 북간도의 무장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들의 활동무대를 북간도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적어도 국민대표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두 사람의 활동무대는 노령이었다고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 중 서간도에서 계속 활동하던 이들은 개조파의 입장을 가지지만, 노령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창조파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김경천과 이청천이 일본군을 탈출해서 신흥무관학교로 오기는 했지만... 그들을 1910년대 초부터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하고 있던 다른 인물들과 동일한 범주로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로 묶어내는 것이 적당할지 의문이다.

3. 발표자가 발표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서간도의 독립운동단체들은 애초부터 이동휘 등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동휘가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된 직후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고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임을 자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북간도의 독립운동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군인구락부에 속해 있던 국민회군의 안무, 의군부의 신일현 등도 애초 이동휘 등과의 관계 속에서 노령으로 이주해 갔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서간도의 독립운동단체들은 상해

파와 함께 개조파의 입장을 유지하는데, 군인구락부 중 북간도 출신의 인사들은 창조파의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4. 발표자는 국민대표회 군사분과 위원들이 제출하여 통과된 군사안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군사노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하면서, 군인구락부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연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자도 표에서 정리했다시피 군인구락부 성원들은 개조파보다는 창조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 즉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은 조직방침은 개조파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군사방침은 창조파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되던지... 아니면 군인구락부는 조직방침은 창조파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군사방침은 개조파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되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좀 더 명확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국민대표회에 참가한 대표들 중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왕에 그와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쓴다면 토론자의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제 도입과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

이준식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1910년 대한제국은 일제에 강제병합되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나라 안팎에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항일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제병합을 계기로 항일투쟁의 목표는 이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나라 안팎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항일투쟁 가운데서도 특히 무장투쟁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장투쟁과 관련해 공간적으로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만주였다. 만주는 무장투쟁 방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실천에 옮겨진 곳이기도 했다. 만주의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만주를 중심으로 정립된 무장투쟁 방침을 특히 독립전쟁이라고 한다.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미 가시화된 독립전쟁론이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독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경제적 실력을 쌓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기회로 일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 방침을 가리킨다.¹

1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나라에서 나타난 반제운동의 최고의 방법이자 결정적인 수단은 무장투쟁이다. 흔히 민족 스스로

만주에서 일찍부터 독립전쟁 노선이 관철된 데는 의병전쟁에서의 패전 이후 해외에서 의병전쟁을 계승해 일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갖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와 인접한데다가 한인들이 이미 많이 이주해 강력한 동포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만주를 독립전쟁의 최적지로 판단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만주 가운데서도 간도협약에 따라 일제의 영사경찰권이 한인에게도 행사되고 있던 동만 곧 북간도와는 달리 북간도 이외의 다른 지역 곧 남만(서간도)이나 북만에서는 일제의 통치 권력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고 있었다는 것도 만주가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로 주목을 받은 이유였다.

만주보다 조금 늦게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곳은 중국 관내의 상하이(上海)였다. 상하이가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된 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던 국제 도시였기 때문이다. 상하이는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동아시아 교통과 물류의 중심 도시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변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모여들던 혁명의 도시였다. 당시 상하이에는 치외법권 지역인 조계가 존재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관용적이던 프랑스 조계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하이에는 1910년 무렵부터 망명 애국지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포사회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하이의 독립운동 여건은 만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상하이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출범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32년까지 13년 동안 임시정부가 위치하고 있던 곳도 상하이였다. 상하이에는 임시정부 외에도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이 모여들었다.

만주와 상하이는 서로 다른 입지 조건 때문에 서로 다른 독립운동 노선의 중심 역

의 힘에 의해 독립(해방)을 쟁취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장투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시에 무장투쟁은 그만큼 치밀하고 끈기 있는 준비와 결단을 요구하는 투쟁 형태이기도 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 무장투쟁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다. 많은 선열이 독립군에 들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더 많은 선열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 그리하여 무장투쟁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더 없이 귀중한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강대국의 시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무장투쟁을 포함한 독립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것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할을 하고 있었다. 외교 운동에 편리한 조건을 갖춘 상하이와 무장투쟁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만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²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이후 독립운동 진영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 발표는 상하이와 만주의 결합, 임시정부와 무장투쟁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이 갖는 의미를 따져보려고 한다.

서간도에서는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활동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간도의 독립운동을 통합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 인물, 더 나아가서는 서간도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삼으려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룡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상룡은 1925년 9월부터 몇 달 동안은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결국 만주와 상하이라는, 독립운동의 두 공간적 중심에서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 이상룡이었던 셈이다. 이상룡은 만주와 상하이의 결합 가능성은 물론 그 결합이 당대에 갖고 있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³

2. 임시정부 초기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의 관계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하이는 동포사회가 별로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다. 1919년에는 천 명도 되지 않는 동포가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로서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 최고 기관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이 이외의 동포사회

2 이 문제는 임시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었다.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 『한국근현대연구』, 67, 2013, 154쪽.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의 관계가 현안으로 대두했다. 재만 독립운동 진영 가운데서도 특히 서간도의 군정부에서는 임시정부에 “국제외교상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가 좋으니 정부 위치는 상해로 할 것, 대(對) 국내 무장광복운동으로서 만주가 적당하니 만주에 군정부 수립을 허할 것”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공보처, 1949, 51쪽.

3 이상룡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글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만주에 망명한 뒤의 행적에 대한 글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영석, 「석주 이상룡 연구: 임정국무령 선임배경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89, 1981; 김정미,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1; 채영국, 『서간도 독립군의 개척자 이상룡의 독립정신』, 역사공간, 2007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은 상당 부분 밝혀진 바 있다.

와 연계를 맺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 이미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만주와의 연계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 지도자이자 즉각적인 독립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자인 이동휘⁴가 1919년 9월 이른바 통합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부터였다. 이동휘의 국무총리 취임을 계기로 재만 독립운동 단체는 대부분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방침을 밝혔다.⁵ 이상룡이 이끌던 서간도의 독립운동 진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시정부가 군정부라는 명칭이 임시정부의 명칭과 충돌한다며 명칭 변경과 임시정부 산하로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여운형을 파견하지⁶ 이상룡의 결단에 따라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고 임시정부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이 단적인 보기이다.⁷ 임시정부도 1919년 11월 17일 특별 국무회의에서 서로군정서를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다.⁸

이와 같이 1919년 말이 되면 통합 임시정부는 초기 임시정부와는 달리 여전히 임시정부에 비판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만주와 노령의 대다수 무장투쟁 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임정이 1920년에 들어서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도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 1월 독립전쟁의 실현에 관건이 되는 노령과 만주의 동포와 독립운동 단체에게 복종과 지지를 요구하는 ‘국무원 포고 제1호’를 공포했다. 이 포고문에는 독립전쟁에 가장 큰 책임을 진, 노령과 만주의 2백만 동포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최고 기관이며 동시 독립운동의 모획과 명령의 중앙 본부”인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 있었다.⁹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

4 이동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반병률,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볼 것.

5 자세한 것은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49-168쪽 볼 것.

6 「행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58쪽.

7 자세한 것은 오늘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서중석의 글을 볼 것.

8 『朝鮮民族運動年鑑』, 1919년 11월 17일.

9 「국무원포고제1호」, 『독립신문』, 1920년 2월 5일.

를 마련했다. 군구를 서간도군구(하얼빈 이남 길림성 부근, 봉천성 전부), 북간도군구, 강동군구(노령 일대)로 나누어 독립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각 군구의 사무는 임시지방사령관이 겸임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정해졌다.¹⁰ 임시정부의 힘이 만주와 노령에 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들 지역에서 이미 독자적인 기반과 조직을 갖고 활동하던 독립군 단체를 인정해 현지 독립운동 지도자가 임시정부를 대신해 군사 정책의 책임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은 1920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동휘가 임시의정원에서 밝힌 시정 방침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시정방침 제5항의 ‘개전준비’에는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지구하기” 위해 앞으로 임시정부가 실행할 14개 항의 준비 방법이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는 군사 경험이 있는 인물을 소집해 군사회의를 열고, 노령과 만주 각지에 10만 이상의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을 실시하며, 기존의 군사 기관을 조사해 군무부에 예측케 한다는 등 만주를 의식한 항이 여럿 들어 있었다.¹¹

1920년을 전후한 짧은 시기에 만주의 대다수 독립군 단체가 대체로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재만 독립군 단체의 관계는 임시정부의 지도가 관철되는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임시정부 군무부가 만주 각지의 독립군 단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임시정부의 지도를 받는 재만 독립군 단체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자의 관계는 지지와 연대의 관계 이상은 아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임시정부와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끊이지 않던 독립운동의 노선 투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 임시정부의 주도 세력은 크게 보면 이승만파, 안창호파, 이동휘파로 삼분된다. 이 가운데 주전론을 주장하던 이동휘파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독립전쟁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1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39-141쪽.

11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07-111쪽.

이승만파가 외교 운동 이외의 다른 독립운동 노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연히 만주의 독립운동 진영은 이승만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서간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이던 이상룡은 1921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군사통일회의 모임과 관련해 “젊은 무뢰배들이 이박사(이승만-인용자)를 옹호한다는 뜻으로 통일회를 헤아리지 못할 지경으로 얽어 모함하는 두 편의 글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그 종적을 조사해보니, 북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도 천진을 가탁하고 있다. 백일하에 공문을 등지고 사사로운 일을 자행하여 국적의 오른팔이 되고도 편안히 부끄러운 줄 모른다. 도무지 양심이 없는 무리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¹² 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승만을 ‘국적’으로, 이승만파를 ‘국적의 오른팔’로 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상룡 등 독립전쟁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외교 운동에만 매달리는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적’이었을 뿐이다.

독립전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는 안창호파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준비론을 견지하던 안창호파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이승만파에 대한 비판보다 현저하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파는 독립전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를 더 강조했다. 곧 즉각적인 개전에만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파와 재만 독립운동 단체 사이에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그나마 남아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20년 무렵 안창호와 이상룡 사이에 오간 편지이다. 먼저 안창호가 “선생(이상룡-인용자)께서는 국가의 영수로서, 덕망이 태산과 같고 노숙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진 분으로 국내외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시니, 바라건대 때로 지침을 내려주시어 저희들이 따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만한 영광과 다행이 없겠습니까. 각항의 정무의 진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외교와 내정, 재무와 군사의 4가지 대단으로 주축을 삼았”¹³다고 한 데 대해 이상룡은 “앞에서 정하신 4가지 대단(大端 : 외교, 내정, 재무, 군사-인용자) 중에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제4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12 「잡저」,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92쪽.

13 「附原書 안창호의 편지」,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421쪽.

을 제2항으로 삼아서 이 일에 전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1항과 제2항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성취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했다.¹⁴ 안창호가 외교, 내정, 재무, 군사의 순으로 독립운동의 중점 사항을 열거하자 이상룡은 순서를 바꾸어 군사, 재정, 외교 내정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우선순위만 바꾼다면 안창호파와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구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재만 독립운동 진영에서 안창호를 통해 임시정부와의 연대를 이루려는 생각은 1920년 초에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 한족회와 서로군정서의 대표로 1920년 임시의정원에 파견된 윤기섭이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정부에 개전을 촉구하는 한편 별도로 개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때¹⁵ 이유필¹⁶ 등 안창호파 일부가 윤기섭에 동조한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는 이승만파가 다수였지만 임시의정원에는 안창호파가 여럿 있었다. 적어도 안창호파는 독립전쟁 노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전반적으로 독립전쟁이 시기강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 가운데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 안창호파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1920년 4월에 일어났다. 윤기섭과 안창호의 회답이 바로 그것이다. 윤기섭이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에 군사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주에 설치할 것과 독립전쟁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재만 독립운동 진영이 평안도에서 자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안창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¹⁷ 안창호파로서는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이기도 한 평안도에서의 공채 발매권을 재만 독립운동 진영에 양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협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 무렵 임시정부는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의 교섭을 위해 정부 위원을 만주에 파견했다. 독립전쟁을 추구하는 만주의 현실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리 없었다.

14 「안도산개 드리다(192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410-420쪽.

15 「대정방침질문」, 『독립신문』, 1920년 3월 20일; 「임시의정원기사」, 1920년 4월 3일.

16 흥사단 단원이기도 한 이유필은 안창호파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7 『도산일기』, 1920년 4월 17일.

1920년 여름 무렵 안창호파는 광복군사령부 조직안과 광복군주비원 설치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전자는 쉽게 통과되었지만 후자는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동녕, 이시영, 신규식의 총장급 인물은 물론이고 김립, 김철, 윤현진, 이규홍 등 차장급 인물도 완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광복군주비원이 설치되면 정부를 광복군주비원의 부속기관으로 만들어 “정부를 안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¹⁸ 안창호파가 만주를 염두에 둔 광복군주비원 설치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이승만과는 물론 이동휘파 일부도 반대하고 있었던 셈이다.

1921년 1월 이동휘가 국무총리직을 사임한 뒤 임시정부 안에 남아 있던 이승만과는 독립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안창호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에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대부분이 임시정부 반대 세력으로 전환했다. 이상룡도 베이징의 군사통일회의와 상하이의 국민대표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측근을 보내 임시정부 개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쇄신을 주장한 것이다. 이동휘의 탈퇴 이후 임시정부 안에서는 독립전쟁 노선 자체가 주변화됨으로써 1925년 무렵까지 임시정부와 이상룡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말았다. 역으로 이러한 상황은 임시정부의 외연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내부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재만 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내세웠듯이 유일 정부이자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3. 임시정부 헌법 개정에 따른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

이동휘의 국무총리 사임으로 촉발된 임시정부의 마비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

18 「김립이 이동휘에게 보낸 편지(1920년 7월 17일자)」,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문서 동문편』, 국학자료원, 1998(이하 『우남문서』); 「피터 장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1920년 7월 16일)」, 『우남문서』; 「장봉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1920년 7월 23일)」, 『우남문서』. 결국 광복군주비원은 참리부로 개칭해 군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장봉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편지(1920년 7월 30일)」, 『우남문서』.

다. 이동휘에 이어 유동열, 김규식, 안창호 등이 임시정부를 탈퇴했다. 1922년과 1923년의 재정 수입이 1921년의 10-2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임시정부 청사에 출근하는 인원 자체가 국무총리 이하 몇몇에 지나지 않았다. 말만 정부이지 실제로는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임시의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1924년 초에 열린 12회 임시의정원은 결원이 많고 의원 보선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식 개회를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¹⁹ 법에 정해진 57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 의원은 많아야 20명 안팎이었고 심지어 적을 경우에는 10명 안팎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파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승만과 가까운 인물들 곧 이른바 기호파는 임시정부의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임시정부 위기의 원인이기도 한 이승만은 불과 5개월의 상하이 체류를 마감하고 1921년 5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동휘 등의 사퇴와 이승만의 무책임한 대응은 임시정부 반대 세력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21년부터 본격화된 임시정부 쇄신 운동은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창조파·개조파 논쟁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창조파 개조파의 차이는 있었지만 양자의 공통점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로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의 최고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룡은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반드시 인물과 노선에서의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개조파에게 이승만과 이승만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임시정부 쇄신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영도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임시정부 출범부터 흑과 같은 존재이던 이승만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1925년 결국 결실을 맺는 데 성공했다.

국민대표회의 후 상하이에 머물던 개조파의 목표는 임시헌법 개정이었다. 1924년 초에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개조파는 임시의정원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개조파의 조상섭과 여운형을 임시의정원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 것이

19 「임시의정원개원」, 『독립신문』, 1924년 3월 9일.

다. 같은 해 5월에는 조상섭에 이어 역시 개조파인 최창식이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되자 임시정부 옹호파 곧 이승만파가 최창식이 경기도 출신이면서도 개조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문제삼아 임시의정원 의장과 의원직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²⁰ 최창식의 사직서가 압도적 다수로 부결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임시의정원의 다수파를 차지한 것은 개조파였다.

개조파는 임시의정원을 통해 이승만의 제거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24년 6월 16일 이승만의 퇴진을 겨냥한 ‘임시대통령 사고문제에 관한 제의안’을 제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제의안은 대통령 이승만이 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4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전제 아래 미주에 있는 이승만에게 속히 상하이에 돌아오도록 요구할 것, 이승만이 돌아올 때까지 임시대통령이 유고임을 공포할 것, 임시대통령의 유고 기간은 국무총리 이동녕이 직권을 대리한다고 공포할 것 등²¹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의안은 그 날 바로 가결되었다.²² 임시정부 국무원은 대통령유고 결의 재의 요구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했지만 임시의정원은 8월 21일 애초의 유고 결의가 타당하다고 확정했다.²³ 이로써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직권은 중지되었고, 국무총리 이동녕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동녕도 1924년 12월 11일 ‘민정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임시의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개조파는 총장들의 사직까지 요구했고 결국에는 각료들도 모두 사직했다. 이동녕이 사직의사를 표명한 날 임시의정원은 박은식을 대통령대리로 선출했다. 박은식은 12월 16일 내무총장 이유필, 외무총장 겸 재무총장 이규홍, 군무총장 겸 교통총장 노백린, 법무총장 오영선, 학무총장 조상섭, 노동총판 김갑의 내각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개조파가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국무원도

2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28-29쪽.

21 「가정부대통령의 직권문제에 관한 건(1924.8.20.)」, 『상해가정부』, 5권.

22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1호, 1924.

23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1호, 1924.

장악하게 되었다.²⁴

다음해 3월 14일 임시의정원의 개조파 의원들은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리하여 3월 23일에는 탄핵을 면직으로 바꾼 면직안이 임시의정원을 통과했다. 임시의정원은 바로 임시대통령 대리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다음날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박은식은 두 달 전에 임명한 각원들을 거의 그대로 다시 임명하고 임시의정원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²⁵ 새 내각의 성원은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 노백린, 내무총장 이유필, 법무총장 오영선, 학무총장 겸 교통총장 조상섭, 외무총장 겸 재무총장 이규홍 등이었는데 이들은 노백린을 제외하면 모두 개조파이자 안창호와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박은식 대통령체제 출범과 동시에 임시헌법도 개정되었다. 임시정부는 ‘국령’을 임시정부 수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했다. 1925년 3월 30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이 임시의정원을 통과했다. 다만 원안의 ‘국령’이라는 임시정부 수반 칭호가 ‘국무령’으로 바뀌었다. 임시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완전한 내각 책임제로 변경시키는 데 있었다.²⁶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의 전환에는 그동안 임시정부를 둘러싼 혼란이 대통령제 헌법과 이승만의 독단으로 비롯되었다는 판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²⁷ 실제로 당시에 이미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택한 2차 헌법 개정이 “원수의 영호를 시탐하여 의자를 주수부동(株守不動)하는 인사의 전례가 있음을 심히 고통으로 생각한 경험에 의”한 것이며 “국무령의 임기를 3개년으로 정한 것” 역시 “임시대통령의 임기를 제한치 않은 헌법을 만들었던 까닭에 얼

24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09쪽.

25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 1925.

26 손세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치지도체계」, 『삼일운동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918-920쪽. 개정된 임시헌법의 핵심은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관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負)함, (중략)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절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이라는 몇몇 조항에 있었다.

27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332쪽.

마나 많은 생경(生梗)이 있었는가”²⁸ 하는 반성에서 나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진 임시헌법 개정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1925년의 임시헌법 개정은 바로 그 대통령제와 대통령 당사자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²⁹

이와 같이 1924년 이후 상하이에서 벌어진 임시정부 쇄신 운동을 주도한 것은 개조파였고 그 중심에는 안창호가 있었다. 개조파는 쇄신 운동의 주요 고비마다 안창호와 긴밀하게 상의했다. 예컨대 박은식 내각의 외무총장 겸 재무총장을 맡은 이규홍은 1924년 12월 21일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들의 사명은 임시정부의 법제 개정인데 우선 임시헌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임시헌법 개정의 주요 논점을 아직 정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해 안창호가 조언해 주기를 바랐다.³⁰ 원래 개조파의 구상은 이승만이 물러난 뒤 안창호를 대통령으로 미는 것이었다. 1925년 1월 5일 조상섭은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의 제도개혁에 대한 상해 인사들의 의견들을 전하면서 “삼두정치라 하고 내용은 도산(안창호-인용자), 일송(김동삼-인용자), 석오(이동녕-인용자) 3선생을 합하여 대통령 행사를 하게 하자”는 안도 있지만 자신들은 제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도산선생이 수령이 되어야 한다”³¹ 며 안창호 본인의 결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개조에 대한 안창호의 생각은 단호했다. 제도 개혁의 문제는 다수의 의견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임시정부의 수령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³² 안창호는 오히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인물을 집중시키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비공식으로 각

28 「임시헌법개정에 대하여」, 『독립신문』, 1925년 3월 23일.

29 그러나 이때의 임시헌법 개정도 분열된 독립운동 진영을 다시 임시정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던 상황과도 관련해 ‘인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내용 곧 ‘법의 문제, 토지 국유화, 공장 국유화’ 등이 헌법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서조차 지적을 받았다. 「임시헌법개정에 대하여」, 『독립신문』, 1925년 3월 23일.

30 「이규홍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24.12.21)」, 『도산안창호전집 제2권 서한Ⅱ』, 490-493쪽.

31 「조상섭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25.1.5)」, 『도산안창호전집 제2권 서한Ⅱ』, 560-562쪽.

32 「안창호가 이유필과 조상섭에게 보낸 편지(1925.1.20)」, 『도산안창호전집 제1권 서한Ⅰ』, 360-409쪽.

방면 유실력한 인사에게 감정이 융화되고 임시정부를 유지할 책임심이 생기도록 소통에 노력함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룡, 이탁이나, 구춘선이나 김약연이나 이동휘, 심지어 이승만”을 포함해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 군인, 그 밖의 각 단체 영수에게 임시정부 유지 대책과 독립운동 방침에 조언을 구하고 다수가 바라는 대로 제도를 정하고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임시정부의 ‘두령’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은 ‘두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오히려 “백암(박은식-인용자) 선생이나 기타 누구든지 백암 선생과 같이 공정하고 인애하는 덕이 있는 이면 만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박은식이나 이상룡을 ‘두령’으로 추대할 것을 권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 면직 이후 박은식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데는 안창호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안창호는 대통령 탄핵과 임시헌법 개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특정 세력의 분파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한 독립운동 진영의 분열을 크게 우려했을 것이다.³³

어쨌거나 개조파의 입장에서 박은식 체제의 유일한 임무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임시헌법이 통과되자마자 박은식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임시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령과 국무원의 결정권을 갖게 된 임시의정원에서는 첫 국무령으로 이상룡을 선임했다. 1925년 7월 7일의 일이다.

국무령제의 도입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누구를 첫 국무령으로 선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당시 임시의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안창호파에서는 만주의 이상룡을 적임자로 보았다. 안창호는 박은식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임시정부의 지도자로 박은식과 함께 이상룡을 추천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룡이 상하이에서 멀리 떨어진 서간도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상룡은 서간도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서간도 독립운동 진영과의 사전 교섭이 필요했다. 이에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선출하기 이전인 1925년 4월에 박은식 내각의 내무총장 이유필과 법무총장 오영선을 만주에 파견했다.

33 윤대원, 앞의 책, 248쪽.

이유필은 안창호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데 준비론자인 안창호와는 달리 1920년에 윤기섭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임시의정원에 같이 제출하는 등 주전론자로서의 면모도 보인 것이 흥미롭다.³⁴ 오영선³⁵은 주전론자인 이동휘의 사위로 이동휘가 상하이로 떠난 뒤에도 상하이에 머물고 있다가 박은식 내각에서 법무총장을 맡았다. 임시정부로서는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 교섭하기에 적절한 인물을 특사로 선임한 셈이었다.

이유필과 오영선은 유하현 삼원포에서 재만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만나 임시정부에 합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의부의 지도자를 국무령으로 옹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³⁶ 임시정부 특사와 정의부 지도자들의 회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개항이 합의가 이루어졌다.³⁷

1. 한국혁명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며 각 단은 이를 추대할 것
2. 임시정부 기관 중 군무부, 재무부, 학무부, 노동부는 점차 만주의 적지(適地)에 옮겨 설치할 것
3. 임시정부는 조선의 각 단체에서 신임을 받은 각 단으로부터 1명의 의원을 선임하고, 역시 구미, 노령, 미주의 대표를 합세시켜 내외 일치의 실을 거둘 것
4. 전기 각 항은 6월 하순 소집하는 임시의정원의 협력을 거쳐 실시할 것

합의의 핵심은 임시정부와 재만 독립운동의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독립

34 주 15) 볼 것.

35 1921년 당시 오영선은 “친러 친중국의 극단한 군사행동주의자”인 이동휘파로 분류된 바 있었다. 『참정상해가정부 간부의 당파별』,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상해가정부 3』.

36 일제 정보문서에 따르면 삼원포에서의 회합에는 정의부의 양기탁, 이탁, 현정경, 지청천, 오동진, 김동삼, 김응섭, 김이대, 그리고 신민부의 김좌진, 박두희, 현천목, 이장녕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기밀 제53호-불령선인의 행동에 관한 건(1925.6.15)』,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41)』. 그런데 정말 신민부 지도자들도 이 회합에 참여했는지는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회합 결과 임시정부 참여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정의부 지도자들이 신민부와의 협의를 위해 지청천을 김좌진에게 파견한 것으로 보아 신민부 지도자들은 삼원포에서의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7 『외무성문서과문 제253호-참정임시정부중심대동단결조직에 관한 건(1925.6.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43)』.

운동의 중심을 만주에 두자는 것이었다. 이후 임시정부 개조의 논의는 정의부 소속 지청천이 신민부에 파견될 타협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확대되었다. 정의부는 임시정부와의 협력에 앞서 신민부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입장을 통일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³⁸ 실제로 지청천은 하얼빈에서 신민부 지도자들과 협의한 결과 정의부와 신민부의 군사·재정 통합, 임시정부 봉대, 만주 각지의 작은 단체 타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³⁹

그러나 정의부와 신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와의 협력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는 이상룡이 1925년 9월 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한 데서 비롯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임시정부의 주류를 이루던 개조파는 안창호의 생각에 따라 이상룡을 첫 국무령의 적임자로 보고 있었다. 이유필과 오영선이 정의부의 지도자를 국무령으로 옹립하겠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이상룡이었다.

임시정부 출범 당시부터 이상룡은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내 생각으로는 정부를 세운 것이 너무 빠르지만, 이미 세웠으니 한 민족에게 어찌 두 정부가 있을 수 있으리오. 또한 지금은 바야흐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니, 마땅히 단합해야 하며, 권세 있는 자리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⁴⁰는 ‘행장’의 한 구절이 임시정부에 대한 이상룡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상룡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출범한 것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었다. 동포들이 많이 살고 독립전쟁 노선을 추진하고 있던 만주를 제치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두 개의 정부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한때는 임시정부에 복속을 다짐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계의 원로이자 늘 독립운동의 통합을 강조하던 이상룡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로서는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안팎에 알리는 데 이상룡만큼 적합한 인물도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임시의정원에서는 1925년 7월 7

38 「기밀 제81호-불령선인행동보고의 건(1925.9.11)」,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민주의 부(41)』.

39 채영국, 『한민족의 만주독립운동과 정의부』, 국학자료원, 2000, 240쪽.

4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68쪽.

일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선출했다.⁴¹ 같은 날 임시대통령 박은식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박은식에서 이상룡으로 임시정부의 수반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상룡은 애초에 국무령 제안을 거절했다. 이상룡은 1858년에 태어났으니 1925년이면 우리나라로 68세의 고령이었다. 이미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보다 열일곱 살 위였으며, 박은식보다 한 살 위였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 안에서도 최고령자에 속하는 이가 이상룡이었다. 나이가 나이니 만큼 국무령이라는 중책을 맡기 힘든 상황이었다. 1926년에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상룡은 몸이 오그라들어 일어나 다니지도 못하고 다리가 무거워 걷는 것도 어려우니 텅 빈 산골에 외로이 누워 날로 수마(睡魔)와 짝하고 지냅니다”⁴² 라고 밝혔을 정도로 당시 이상룡의 건강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상룡이 임시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이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임시정부 개조와 창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상룡은 개조파의 입장이었다. 말하자면 임시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이상룡으로서는 비록 노선의 차이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베이징의 군사통일회의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이상룡을 수반으로 추대하려는 데 대해 “지금 만약에 한 지역의 인사들로서 총부를 조직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비난이 있게 되면 인심이 따르지 않게 되고 그리되면 형세는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그 수임(首任)에 저의 이름을 채워 넣으려고 하시는데, 재주와 덕망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간도의 기관(서로군정서-인용자) 일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직명을 갑자기 사양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한 몸으로 두 가지 역할을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통회(統會: 군사통일회의-인용자)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같은 도 출신의 친우들의 요청을 특별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사

41 「국무령선거」, 『독립신문』, 1925년 10월 21일.

42 「이호영에게 답하다(192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416쪽.

로이 한쪽 편을 든다는 혐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⁴³ 라고 해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정부측의 간곡한 부탁과 정의부 일부 동지들의 설득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이던⁴⁴ 이상룡이 국무령직을 수락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다. 노선, 출신 지역, 활동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는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과 단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⁴⁵ 이상룡으로서는 이승만의 대통령 면직과 그에 따른 국무령제의 도입을 통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진영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갖추었고 따라서 재만 독립운동의 최고 원로인 이상룡이 나서서 임시정부의 쇄신 더 나아가서는 만주와 상하이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달라는 임시정부측의 제안을 마냥 뿌리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정의부 안에서도 이상룡이 국무령에 취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특히 중앙행정위원회 쪽에서 주로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을 찬성했다.

여기에 이승만의 퇴진과 임시헌법의 개정을 계기로 임시정부 활동 더 나아가서는 전체 독립운동이 새로 고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상룡은 국무령 취임 직후 세상을 떠난 박은식을 기리는 제문을 썼는데 그 가운데 “군사를 내어 이기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었으니 出師未捷身先死 오래도록 영웅들이 눈물로 옷깃 적시게 하네 長使英雄淚滿襟”라는 두보의 시⁴⁶를 인용하면서 “공(박은식-인용자)의 오늘은 바로 우리 대한이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로 원근의 각 단체가 차례로 통합되고 내외의 인심이 일치되어 돌아오며 인재와 물력이 날로 무럭무럭 불어나고 있는 때라, 만일 우리 공이 몇 년 만 더 사셨더라면 서울 한복판에 태극기가

43 「북경의 여러 벗들에게 답하다(192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435-436쪽.

44 당시 이상룡과 같이 지내던 손부(孫婦) 허은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룡의 조카 이광민은 자기의 백부인 이상룡이 임정의 국무령 취임 문제를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백부의 곁에서 백부 자신이 결정을 내릴 문제라고 진언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고 한다. 박영석, 앞의 글, 146쪽의 주 20)에서 재인용.

45 이상룡에 따르면 “국가사업이란 결코 한두 사람의 의지로 이를 이룰 수 없고 2천만 동포가 서로 경계하고 면려하여 마음을 깨닫고 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협력 분투하여야만 비로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국민대표회주비회에 답하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416쪽.

46 제갈량을 기리는 <촉상(蜀相)>이라는 시이다.

휘날리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⁴⁷ 라고 쓴 대목이 눈길을 끈다. 잘만 하면 몇 해 뒤에는 조국 광복의 그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야말로 노구의 이상룡이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상하이로의 길을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장고 끝에 국무령직을 수락하기로 결심한 이상룡은 조카인 이광민과 함께 1925년 9월 9일 상하이로 출발했다. 7월 7일 국무령으로 선출된 지 두 달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다. 두 달이라는 시차는 그만큼 이상룡의 상하이행이 만만치 않은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어쨌거나 9월 19일 상하이에 도착⁴⁸한 이상룡은 취임식에 앞서 상해청년동맹회에서 연 환영식에서 ‘민중의 조직’화에 앞으로 힘쓰겠다는 연설을 했다.⁴⁹ 9월 24일에는 삼일당에서 임시의정원 의장 최창식의 사회로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식이 열렸다. 이상룡은 취임사에서 “대동단결을 이루어서 민중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기초를 공고히”⁵⁰ 하자라는 취지의 취임 연설을 했다. 같은 날 이광민은 국무원 비서장 임시대리에 선임되었다.⁵¹

국무령에 취임한 이상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시의정원에 추천할 국무원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상룡의 추천에 따라 임시의정원에서는 1925년 10월 10일 이탁, 김동삼, 오동진, 이유필, 윤세용, 현천목, 윤병용, 김좌진을 국무원으로 선임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조성환을 추가로 국무원으로 선임했다.⁵² 이로써 이상룡 내각의 국무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 가운데 이탁, 김동삼, 오동진, 윤병용은 정의부 간부였고, 김좌진, 현천목, 윤세용, 조성환은 신민부 간부였다. 이유필만 임시정부의 기존 간부였다.⁵³ 9명의 국무원 가운데

47 「백백암에 대한 제문(1925)」,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664-665쪽.

48 「국무령각하도착」, 『독립신문』, 1925년 10월 21일.

49 동아일보, 1925년 10월 2일.

50 『동아일보』, 1925년 10월 2일.

51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1925년 9월 25일.

52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4호, 1926.

53 일부 연구에서는 국무원의 구성이 정의부 5명 또는 4명, 신민부 3명, 참의부 2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참의부로 분류되는 이유필이 참의부 성원이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에 망명한 이래 줄곧 상하이에 머물던 이유필이 참의부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중교의 윤세복을 정의부 몫의 국무원이라고 분류하기도

데 무려 8명을 재만 독립운동 진영에서 선임한 데는 앞으로 임시정부의 제반 활동이 만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이상룡의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⁵⁴ 이는 애초에 임시정부측에서 정의부와 임시정부 참여를 교섭할 때 합의된 내용이기도 했다. 당연히 이상룡은 자신의 구상대로 국무원이 구성될 수 있으리라 낙관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판판이었다. 상하이의 이유필만 국무원으로 취임했고⁵⁵ 나머지 국무원은 선임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상하이에 오지 않았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무원이 취임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상룡이 국무령으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취임 자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상룡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상룡은 독립운동의 단결과 통합, 그리고 민중적 기초의 확대라는 평소의 지론을 널리 알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독립신문』에 석주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글이다. 이 글은 이상룡이 국무령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글이자 그의 독립운동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글이므로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자.

금후로 더욱 광명한 전도를 개탁하려면

1. 민중적 토대를 세울 것

민중을 떠나서는 사업의 성취를 꾀하지 못할지니 특수한 인물이나 소수의 계급을 위하야 사기(事機)의 전체를 운전함은 실지에 위배됨이 심한지라. 오직 민중적 토대를 공고히 하여 모든 일을 온전히 민중 본위로 진행하여야 할지며

2. 혁명적 정신을 가질 것

하지만 윤세복은 정의부 간부가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신민부와 가까웠다. 실제로 윤세복의 동생인 윤세용은 신민부 간부였다. 그리고 윤세복이 국무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의부로 분류되는 윤병용은 실제로는 정의부 간부였다.

54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강조하던 이상룡이 왜 참의부에는 단 한 명의 국무원도 배정하지 않았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참의부가 노골적으로 친이승만, 반(反)정의부 노선을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신민부도 친이승만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55 「국무원이유필각하취임」, 『독립신문』, 1925년 11월 1일.

혁명적 정신이라 함은 가장 철저하고 견강하고 용감한 것을 가르침이니 우리의 사업은 일시의 득실에 현혹되지 않고 영구의 시비를 분석하여 가는 확고한 정신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운동이 전진됨을 따라 양전(良田)에 잡초처럼 생겨나는 모든 애매 불철저한 반동적 장애물을 여지없이 예제(刈除)하는 동시에 공상불발(恆常不拔)의 심지로써 용왕직전(勇往直前)하여야 할지며

3. 단합적 역량을 이룰 것

우리의 역량은 오직 단합함에서 생길지니 대업성취에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분열과 귀산(潰散)이 생기는 것은 자상잔멸(自相殘滅)의 참황을 초치할 뿐이라 부단의 노력으로써 대동한 목표 하에서 일치단합의 역량을 구성하여야 할지며

4. 실제적 사업을 주중(主重)할 것

억만가(億萬段)의 허구공상보다는 일루의 실제사업이 우리의 취할 바이니 조직설비의 규모와 진공퇴양(進攻退養)의 방략을 온전히 활동의 실제적 근거에 適습 하도록 하여야 할지며

5. 조직적 행동으로 진행할 것

일통한 체계가 없는 산만한 방책과 밀절한 연쇄가 없는 개별적 공작으로는 전선의 내부를 정돈치 못할지며 따라서 성공의 기일을 단축시키기 어려울지니 반드시 계통적 연쇄와 엄밀한 규률 밑에서 만반의 활동을 일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이제 밖으로는 국제적 형세가 극히 긴장되어 세계적 변동의 기운이 박두하였으며 안으로는 만반의 방침을 쇄신여행할 시기에 이르렀으니 원컨대 아동포는 대업의 완성을 위하여 합심동덕(合心同德)할지이다.⁵⁶

요는 독립운동의 최종 목표인 조국의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심동덕’ 곧 독립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광민도 국무령 취임식 이전에 『독립신문』에 발표

56 석주, 「금후의 노력」, 『독립신문』, 1925년 11월 1일.

한 기명 논설의 제목(‘독립운동을 민중화하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각방 지사가 통일단합을 규호분력(吡呼奮力)하여 급전직하의 세로 이 경장의 신기운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이나 소비에트러시아에 매달리는 외교 운동에서 벗어나 ‘이천만 민중’을 토대로 한 혁명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당찬 포부를 피력했다.⁵⁷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과 민중에 바탕을 둔 혁명 사업을 통해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상룡의 뜻이자 그의 조카이자 동지인 이광민의 뜻이었다. 두 사람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상하이로의 긴 여정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룡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이전에도 그랬듯이 독립운동의 진영의 내분이 끝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이상룡의 국무령 사임과 만주로의 귀환

이상룡은 1925년 9월 이광민을 대동하고 상하이에 와서 국무원 조각에 착수하는 등 정부 구성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해 12월 베이징으로 떠난 데 이어 다음 해 초에는 만주로 돌아갔다. 이로써 이상룡 국무령 체제는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상룡은 국무령 취임 뒤 국무원에 남만의 정의부, 북만의 신민부에서 주요 지도자를 망라하고 또 그동안 독립운동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던 지방색을 감안해 평안도, 함경도의 서북 출신은 물론 기호와 영남 출신의 인물도 기용하려고 했다.⁵⁸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국무원 취임을 거부함으로써 조각에 실패하고 말았다.

재만 독립운동 진영 지도자들의 취임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애초에 이상룡이나 정의부 측에서도 “북만의 신민부만이라도 우선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⁵⁹ 이와 관련해 특히 이상룡이 신민부를 주도하던 김좌진에 대해 서로

57 리광민, 「독립운동을 민중화하자」, 『독립신문』, 1925년 10월 21일.

58 윤병석, 「1920년대 만주에서의 민족운동과 군정부」,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5, 140쪽.

59 「김이대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권 서한집 I』. 김이대는 정의부 중앙의회 의장이었다.

군정서와 북로군정서의 양립 시기부터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⁶⁰ 실제로 이상룡은 1920년에 김좌진에게 쓴 편지에서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는 만주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북만주와 남만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을 뿐 “하나면서 돌이고 돌이면서 하나”⁶¹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연장하면 두 군정서의 후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민부와 정의부도 이신동체의 독립운동 기관이 된다. 따라서 이상룡이 김좌진 등의 신민부 인사를 임시정부의 국무원으로 추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상룡의 생각과는 달리 국무원으로 선임된 신민부의 김좌진, 현천목, 조성환, 윤세용은 모두 취임을 거부했다. 여기에는 이승만이 국민대표회의를 파괴하기 위해 비선을 통해 재만 독립군 단체에 행한 공작이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룡 국무령 체제가 무너진 뒤인 1926년 4월 15일 신민부의 중앙 간부인 김혁, 김좌진, 박성준이 신민부 창립 1주년을 맞아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민부 결성 과정을 보고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아버자의 간통과 최후 사자(私者)의 편견으로 우리 운동의 전도를 장애하며 사업의 발전을 저지케 함은 실로 통한하는 바”⁶² 라고 밝힘으로써 당시 이승만을 탄핵하고 임시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정국 쇄신을 꾀했던 개조파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신민부가 이처럼 노골적인 친이승만의 관점에서 임시정부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상룡 국무령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25년 11월 1일자 『독립신문』에는 국무령 취임과 독립신문 재간을 축하하는 광고

60 이와 관련해 따로 더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1920년대 중반 만주에서 나타난 이른바 3부 정립을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대립만이 아니라 활동 구역의 분화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작은 가지만 보면 3부 사이에 때로는 노골적인 그리고 때로는 미묘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을 본다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협력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의부와 신민부의 관계가 그러하다. 지청천의 정의부의 명령에 따라 신민부에 파견된 것이나 1926년 3월 이후 고려혁명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양기탁, 현정경, 지청천 등 정의부측 인물은 물론 신민부의 김좌진도 참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재만 3부의 관계는 지역적으로 만주가 넓기 때문에 형성된 독립전쟁의 역할 분담 체제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복영, 160쪽의 주41 볼 것.

61 「김좌진에게 답하다(192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444쪽.

62 「김혁·김좌진·박성준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1926년 4월 15일)」, 『우남문서』.

가 실렸다. 신민부 선전부 상해지부 이름의 광고였다. 광고에는 신민부 간부 명단도 적혀 있었는데 윤성좌(윤세용-인용자)의 이름 외에 김좌진, 현천목, 조성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좌진 등이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신민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의부에서도 아무도 국무원으로 취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일단 정의부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의부의 중앙행정위원회는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을 적극 찬성했지만 중앙의회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갖고 있었다. 임시정부로부터 앞으로 실제 활동의 중심을 만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는 전제조건 아래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중앙의회가 채 동의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상룡이 상하이로 떠나 국무령으로 취임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상룡의 처신을 둘러싸고 정의부 안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1925년 6월 만주의 장작림(張作霖) 군벌의 평토펜(奉天)성 경무처장 우진(于珍)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三矢宮松)이 체결한 이른바 미쓰야(三矢)협정 때문에 재만 독립운동이 위축되고 있던 상황도 이상룡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미쓰야협정의 핵심은 중국 측에서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일제 경찰에 넘긴다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한인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재만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임시정부 참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규식, 박은식은 이미 서거했고 안창호도 이상촌 건설을 목적으로 상하이를 떠나는 등 상하이 주변에서는 분열된 정국을 아우를 만한 독립운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없었다. 극심한 인물난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진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상룡이 내각을 꾸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⁶³ 실제로 나중에 국무령

63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332-333쪽.

으로 취임하게 되는 김구가 “제1대 국무령으로 이상룡이 취임하기 위하여 서간도로부터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인재를 고르다가 입각 지원자가 없자 도로 간도로 돌아가 버렸다”⁶⁴고 회고한 것이 당시 이상룡의 처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처럼 인물난 때문에 조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상룡이 상하이의 상황에 절망하도록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1925년 12월 3일 박희곤 등이 그해 7월 재상해아주 민족협회의 집행위원인 중국인 오산(吳山)의 초대를 받은 여운형이 일본인도 참가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타한 ‘여운형 구타 사건’⁶⁵ 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상하이의 친참의부 세력이었다. 이전부터 계속되던 이승만파와 개조파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에 개조파이던 임시정부 경무국장 나창헌은 사건 주모자인 박희곤 등을 강제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상룡과 이광민이 사건 조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격분한 나창헌은 1926년 1월 25일 경무국장직을 사임하는 한편 이상룡을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옹립한 개조파도 나창헌의 주장에 합세했다.⁶⁶

사실 여운형 구타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빌미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룡을 비난하는 데 앞장을 선 나창헌은 이유필이 대장을 맡고 있던 병인의용대의 부대장이자 이유필과 같은 평안북도 출신이었다. 안창호가 이끌던 흥사단 단원이기도 했다.⁶⁷ 그런 나창헌이 이상룡을 비난하고 나선 데는 결국 이상룡을 상하이로 불러들인 안창호파가 이상룡을 제치고 직접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속내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창호파가 끊임없이 안창호를 임시정부 수반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위해 만주에서 단신 상해로 왔던 이상룡으로서는 전혀 예

64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16쪽.

65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575쪽. 재상해아주민족협회는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한국, 대만 등의 동지를 회원으로 하고 아시아 민족의 단결을 표방하는 반제국주의 단체였다.

66 『조선민족운동연감』, 1925년 12월 10일.

67 「상해에서의 불령선인단체 흥사단 회의에 관한 건」, 『불령단관계잡건-선인의 부-재상해지방(5)』.

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일찍이 군사통일회의와 국민대표회의에서도 독립운동 진영의 내분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탄식한 적이 있던⁶⁸ 이상룡은 결국 상하이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 국무령 취임을 승낙할 때 정의부와 상하이 개조파가 약속한 바 “독립운동 각 단체를 연락 타합”하며 “정부는 국경 방면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이었다.⁶⁹ 정부 이전은 독립전쟁을 지향하던 만주 독립군 단체들의 오랜 희망 사항이었다. 결국 이상룡이 국무령을 사직한 이유는 정의부가 요구한 네 가지 조건이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운형 구타 사건은 사직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룡이 국무령을 사직하고 만주로 돌아가면서 남긴 다음의 한시에는 노구에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과 쇄신을 위해 상하이에 갔지만 “시기가 난무하는 판국(多猜局)”으로 인해 어느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소회가 잘 담겨 있다.⁷⁰

가을달이 사람 청해 경솔히 문을 나섰다가 秋月要人輕出戶
 봄바람을 짝으로 삼아 집으로 잘 돌아왔네 春風作伴好還家
 산도 물도 노하는 시기가 난무하는 판국에서 山噴水怒多猜局
 웃는 낯으로 맞이해 주는 건 너 꽃뿐이로다 笑面相迎獨爾花

68 예컨대 “회의(국민대표회의-인용자)가 개최되자 임시정부의 창조와 개조의 문제로 여러 날 쟁론하다가, 결국에는 분열되어 끝나고 말았다. 공(이상룡-인용자)은 개연히 탄식하면서, 단합을 도모하려 하다가 도리어 어긋나고 말아서 크게 본래의 뜻을 잃었으니, 구차히 따를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국외 중립을 선언하여 편벽되어 기운 바가 없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행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60쪽.

69 1925년 4월 이유필, 오영선이 정부를 방문하고 이어 7월 임시의정원에서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선출했을 때 정부 안에서 이 문제로 중앙행정위원회와 중앙의회 사이에 서로 불신임 결의와 의회 해산으로 맞설 정도로 의견 대립이 심했다. 임시정부와의 타협 방안과 관련해 중앙행정위원회는 “정부에 들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독립운동의 각 단체를 연락”하자고 한 데 반해 중앙의회는 “먼저 각 운동 단체를 연락하여 정부로 들어가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의회의 주장대로하기로 하고 정부는 임시정부와 다음의 “독립운동 각 단체를 연락 타합할 일, 제도는 위원제로 할 일, 의정원 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한하며 만인에 1인의 예로 할 일, 정부 위치는 국경 방면에 이전할 일”의 네 가지를 타협안으로 결정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도산안창호자료집 3』, 1992, 228-229쪽.

70 『행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집,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61쪽.

5. 맺음말

이상룡의 국무령 사임 이후에도 임시정부는 만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양기탁을 이상룡의 뒤를 이어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 선출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진영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기탁이 국무령을 수락할 경우 이상룡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컸다. 한번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임시정부와의 협조가 올바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웠다. 양기탁도 결국 국무령에 취임하지 않았다. 당시 임시정부가 만주를 아우르는 독립운동을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임시정부가 다시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 실질적으로 손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만주사변 이후의 만주의 정세 변화였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에서는 중국군과 공동 전선을 취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에 의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1933년 말 한국독립군 주도 세력의 관내 이동을 계기로 재만 민족주의 계열 지도자는 거의 만주를 떠나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 상당수는 임시정부와 대립하고 있던 세력과 연대해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민족혁명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민족혁명당을 탈당한 재만 독립운동 진영 출신은 대거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이로써 임시정부와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연대는 본격화될 수 있었다. 1940년 한국광복군 창군 당시 총사령을 맡은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자 서로군정서와 정의부의 간부였다. 지청천뿐만 아니라 이범석, 김학규, 황학수, 고운기 등의 광복군 간부가 대부분 만주 독립군 출신이었다.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세력이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 창군의 주체가 된 것이다.

중국 관내로 이동한 뒤에도 재만 독립운동 진영 출신은 늘 만주로 돌아가 무장투쟁을 재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들에게 만주는 늘 최종적인 독립전쟁의 장이었다. 실제로 한국광복군 창설 초기에 작성된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에는 한국광복군이 “기(冀: 하북성), 섬(陝: 섬서성), 예(豫: 하남성), 노(魯: 산둥성), 진(晋: 산서성)

및 동북 네 성⁷¹을 주요 활동 구역”으로 하며 만주 지역 한인 무장 대오에 대해서는 적색 군대도 편입해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⁷² 이는 한국광복군이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을 계승해 여전히 만주를 주요한 접적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념을 떠나 만주의 모든 세력을 한국광복군으로 편입함으로써 한인 무장 세력의 통일을 도모하려고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오랜 방침 곧 만주 중심의 무장력 강화, 독립 운동 진영의 대동단결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⁷³ 만주를 무장투쟁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한국광복군의 방침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지청천은 1942년에 열린 임시의정원 35차 회의에 김원봉 등과 함께 제출한 ‘군사 정책에 관한 제안’을 통해 “재만 현유(現有) 한인 무장대에 대표를 파견하여 이와 절실한 연락을 취하고 가능한 범위의 원조를 주며 통일적 작전 노선과 공작 방침을 지시할 것”을 주장한 데 이어⁷⁴ 1945년 3월에는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 앞으로 제출한 ‘군사 정책 제안’에서도 한국 독립 운동의 시기를 제1기(준비 시기), 제2기(작전 시기), 제3기(결전 시기)로 구분하면서 제2기와 제3기의 과제를 각각 주력 부대의 만주 회전 참가, 만주를 기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의 진공으로 설정했다. 만주에서의 전면전을 통해 독립을 이룬다는 생각은 해방 직전까지도 한국광복군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71 동북 네 성은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열하성을 가리킨다.

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국사편찬위원회, 2006, 20-21쪽.

73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 무장 독립 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문학과지성사, 1995, 368쪽.

74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안 심사 보고 및 결의안 제안 심사 보고서(2)』, 『독립운동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70, 331쪽.

토론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제 도입과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 논문은 서간도 독립운동계를 대표하는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의 배경과 과정을 통해 상해 임시정부 세력과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연대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필자는 임시정부의 활로는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한 만주 세력과의 결합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은 임시정부와 무장투쟁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임시정부와 재만 독립운동 진영의 실상을 반영하듯 논문의 주 내용은 이상룡 국무령 체제의 한계와 실패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했지만 1920년 전후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그리 원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 주된 이유는 독립운동 노선 때문이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이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독립운동계의 분열이 격화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서간도 독립운동계의 대부격인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은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노선으로 변화를 꾀하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이상룡은 재만 독립운동 진영과 상해 임시정부의 결합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 결합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문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2. 이상룡은 임시정부에 대해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반드시 인물과 노선에서의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즉 개조파의 입장에서 있었다. 개조파가 장악한 임시정부가 그를 국무령으로 선임한 이유도 주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이 그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3. 또한 이상룡은 줄곧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한 인물이고 국무령직을 고심 끝에 수락한 이유도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룡 내각의 국무원 구성을 보면 9명의 국무원 중 8명이 재만 독립운동 진영이었고 1명이 임시정부 인사였다. 즉 통합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 인사를 철저히 배제시킨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4. 이상룡은 임시정부 개조파의 추대와 정의부 중앙행정위원회의 찬성, 임시정부의 간곡한 부탁과 정의부 간부들의 설득으로 국무령에 취임했는데, 결국 이상룡은 이들의 협력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 주된 이유로 임시정부 개조파의 안창호 임시정부 수반 추대와 권력 장악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조파의 의도는 처음 이상룡을 추대할 당시부터 구상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개조파의 입장이 변화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정의부가 협력하지 않은 이유로 중앙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기도 전에 상해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애초에 국무령 제안을 거절했고 장고를 거듭하던 이상룡이 정의부 중앙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기도 전에 국무령으로 취임했고, 이 때문에 정의부 내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기에 국무령 취임 후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강조하며 선임한 국무원 대다수가 취임하지 않았다. 정의부와 신민부의 주요 지도자를 망라하고 지방색까지 감안해 구성된 국무원들이 취임을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친이승만계인 신민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의부 인사들까지도 취임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국무원들의 취임 거부가 임시정부의 위상 문제인지, 고질적인 임시정부 내분 문제인지, 이상룡 체제의 문제인지, 대외 정세의 문제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5. 마지막으로 국무령 사직은 이상룡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독립운동 노선과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파악이 가능하다면 국무령 취임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